

국제통상학석사 학위논문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재조명
사업에 대한 고찰

An inquiry into the Marine Trade Activities of Chang Pogo
and the Historical Evaluations of His Achievements

指導教授 崔 成 日

2007年 1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通商行政學科 鄭 昌 源

국제통상학석사 학위논문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재조명
사업에 대한 고찰

An inquiry into the Marine Trade Activities of Chang Pogo
and the Historical Evaluations of His Achievements

指導教授 崔 成 日

2007年 1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通商行政學科 鄭 昌 源

本 論 文 을 鄭 昌 源 의 國 際 通 商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심 사 위 원 장 최 홍 배 인

심 사 위 원 차 경 자 인

심 사 위 원 최 성 일 인

2007년 12 월

한 국 해 양 대 학 교 대 학 원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장보고와 청해진 설치	7
제1절 장보고의 생애	7
제2절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8
1. 청해진 설치의 목적과 성격	8
2. 청해진 세력의 기반	11
3. 청해진 세력의 성격	16
제3장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	19
제1절 장보고의 신 해상무역 항로 개척	19
제2절 장보고의 해상무역 현황	22
1. 당(唐)과의 교역	22
2. 일본과의 교역	23
3. 이슬람과의 교역	25
제3절 장보고 해상무역 활동의 의의	26
제4장 장보고 재조명사업의 추진과 의의	29
제1절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 경위	29
제2절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의 의의	32

제3절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34
1. 추진사업 내용	34
2. 장보고의 유적·유물 분포 현황	37
제5장 결론	42
<참고문헌>	44
<부록>	46
ABSTRACT	66

- 표/그림 목차 -

<표 3-1> 신라의 국별 수출입 품목	26
<표 4-1> 장보고 관련 추진사업 연혁	31
<표 4-2>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추진현황	35
<그림 2-1> 청해진의 본영으로 추정되는 완도의 장도 전경	11
<그림 3-1> 신라시대 기존항로 및 개척항로	21
<그림 4-1> 이종상 화백이 그린 장보고 표준영정	30
<그림 4-2> 무역협회ASEM 2000 컨벤션센터 전면의 장보고 상징조형물	36
<그림 4-3> 장보고 동상 조감도	37
<그림 4-4>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	39
<그림 4-5> 완도군 장도에서 발견된 목책	40
<그림 4-6> 완도 청해진 유적출토 소병형	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언하고 있다. 지구생명의 모체인 해양은 이제 인류의 희망이요 미래 그 자체이다. 바다는 끝이 없을 정도로 광활하다. 무한한 수평선은 해양민족들에게 거시적 안목을 심어주고 인내심과 대담성 등 정신을 고양시켜준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바다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른 영욕의 현상이었다. 해상질서를 확보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평가되어왔으며, 일찍이 바다의 위대함을 터득한 위인이나 국가는 바다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았다.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월터 롤리경¹⁾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상업을 지배하고, 상업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해상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에서 69명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장보고를 무장(武將)으로 선정하였으나, ‘반란자’ 내지 ‘반란 기도자’ 로 폄하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김부식과 마찬가지로 장보고가 신라 왕실에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로 ‘반란자’ 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모반자’ 였던 장보고가 ‘해상왕’ 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최근들어 장보고를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인도 그를 불세출의 영웅 또는 해상무역왕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1) 영국 군인·해양탐험가·문인. 엘리자베스왕조의 전형적 르네상스인인 그는, 1578~1579년 의부(義父)에게서 태어난 형 H. 길버트의 항해에 참가하였다. 아일랜드정책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아 1584년 나이트작위를 받았다. 1584~1585년 북아메리카를 탐험, 플로리다 북부를 여왕인 엘리자베스를 기념하여 버지니아라고 이름붙이고 식민(植民)을 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1587년 근위대장(近衛隊長)이 되었으나 1592년 여왕의 총애를 잃고 한때 투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1595년 남아메리카의 오리노코강을 탐험하고, 1596년 2대 에식스백작을 따라 카디스를 습격했다. 제임스 1세 치하에서는 1603년 반역사건에 연루되어 투옥, 옥중에서 《세계사(The History of the World, 1614)》를 저술했다. 1616년 석방되어 다시 오리노코강의 탐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귀로에 에스파냐령에서 난폭하게 굴었다는 에스파냐측 항의에 따라 처형되었다. E. 스펜서의 친구로 서정시인으로서도 유명하다.

특히 2004년에 KBS에서 장보고를 주제로 한 드라마인 “해신”을 방영한 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묘사한 소설도 수십여종 발간됐다. 아동용 만화도 잇따라 발간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도 제작됐다. 해군에서도 장보고의 해외 개척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국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의 이름을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으며, 동원증권에서는 ‘장보고 뮤추얼 펀드’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국내 사료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더 많다.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에 살았던 중국의 두목이나 일본의 구법승인 엔닌이 당시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상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그들의 저서에 기록한 사료들은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한 뛰어난 국제무역상으로 그를 추앙하고 있다.

21세기의 도래와 장보고의 재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는 1200년 전에 당(唐), 일본의 무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와 중계무역을 하는 등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하였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다. 장보고는 9세기 신라 해양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장보고는 동북아시아의 해상통상로를 개척하고 해외무역의 전진기지를 설치하는 등 유사 이래 가장 광활한 해양활동을 전개하였다²⁾. 하지만 장보고에 관한 사료는 정작 있어야 할 본국인 신라에는 별로 없는 대신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모반의 혐의를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경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글로벌화 진전으로 단일경제권이 급속히 구축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경을 초월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상품은 물론 자본과 노동력이 국가규제와 관세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을 뜻한다.

장보고는 이처럼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이미 1200년 전에 동북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경험은

2) 통일신라의 역사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장보고가 활약했던 9세기 전반일 것이다. 국내 정치나 문화로 본다면 전성기가 지난 9세기이지만 장보고의 활약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다. 이런 장보고에 대해 우리는 잊고 지내다가 외국인에 의해 먼저 주목된 다음에서야 터진 붓물처럼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다. 현재까지 청해진으로 추정되는 완도의 장좌리에 있는 장도에 대한 발굴이나 산동반도의 법화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제대로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 국경을 초월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장보고는 세계인이며 무역인이었다. 그것은 당시 동방세계의 중심이던 당나라의 사서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이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목(903-852)³⁾의 『변천문집』에서 전제한 것이었다. 두목은 2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양주에서 생활하였는데, 당시 양주는 장강 하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심장부이며 동·서양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던 도시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두목은 장보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양주는 진귀한 보물과 향료·약초·비단·도자기·차·동기·복장 심지어 선박에 이르기 까지 매매되는 번성한 도시였고, 그러므로 신라인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의 상인들도 이곳에 거류하였던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정사인 『육국사(六國史)』에는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이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 『속일본기(續日本記)』에는 온통 신라인과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또한 일본의 구법승 엔닌(円仁, 794-864)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4권)에는 전권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반 이상이

3) 중국 당(唐)나라 시인. 자는 목지(牧之), 호는 변천(樊川). 경조부 만년현(京兆府萬年縣; 陝西省 西安市) 출생. 명신(名臣)으로 이름났으며, 《통전(通典)》의 저자인 두우(杜佑)의 손자. 만당(晚唐)의 문단에서 이상은(李商隱)과 더불어 이두(李杜)로 불리었으며, 또 작품이 두보(杜甫)와 비슷하여 소두(小杜)라고도 했다. 26세에 때 진사에 합격하여 뒤에 우승유(牛僧儒)의 서기에서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승진하였다. 아우의 병 때문에 물러난 뒤에 다시 선주(宣州)의 단련관(團練判官)이 되고, 이어 지주(池州)·목주(睦州)·호주(湖州) 등지의 자사(刺史)를 지내고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이르렀다. 스스로 병사무비(兵事武備)의 재략(才略)을 자랑하며 변경의 방비책으로 유명했으나, 후세에는 시인으로 더 알려졌다. 그의 작품은 호매(豪邁)와 여염(麗艷)의 두 경향으로 나뉘며, 산문보다 시 특히 칠언절구를 잘 하였고 말의 수식도 능하였으며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함축성이 풍부한 서정시를 많이 남겼다. 대표작으로는 《강남춘(江南春)》, 《아방궁부(阿房宮賦)》, 시문집 《변천문집(樊川文集)》, 빙집오(馮集梧)의 《변천시집(樊川詩集)》 등이 있다.

당나라 사람이거나 일본사람이 아닌 신라사람이다.⁴⁾

이것은 당시 장보고와 그의 선단의 활약상이 어떠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신라의 통일을 전후하여 당의 서울 장안에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서역인이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급증하여 780년경에는 장안에만도 5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해상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아라비아·페르시아 상인들은 인도양을 넘어 자바·스마트라·캄보디아 등 ‘남해’ 일대에 까지 상업시장을 넓혀 갔다. 이 시기 신라 무역상인들도 이들 지역에서 교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신라는 통일이후 당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지면서 사신을 비롯하여 승려·유학생·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였다. 이미 경주는 장안에서 크게 유행하던 서역물품들이 들어와 있었다.

신라 귀족들이 애용하던 많은 이국 상품은 재당 신라인들의 모국을 상대로 한 무역활동에서 반입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이슬람 상인이 직접 반입하였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과정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신라의 국제 무역상인이었으며,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이다. 우리는 장보고를 재조명함에 있어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의 역사적 위대함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장보고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 대외 지향적 사고를 갖고 우리나라의 무역을 개척한 선각자였다. 그는 진정한 개방주의자이며, 자유무역주의자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국제 민간교역을 행한 주인공이며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를 맨 먼저 실천에 옮긴 ‘해상무역왕’ 이었다. “로마시대 로마사람에게는 지중해가

4) 일본 天台宗(천태종)의 제3祖 엔닌(圓仁)의 中國 여행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唐人이 아니라 新羅人이었다. 엔닌은 신라의 張保臯(장보고)에게 보내는 일본 규슈지방 太守(태수)의 소개장을 휴대하고 唐나라에 들어가 근 10년간 체류하는 동안 張保臯 휘하 신라인들의 보호를 받았다. 엔닌이 쓴 「入唐求法巡禮行記(입당구법순례행기: 以下 순례행기)」는 9세기 東아시아의 국제관계와 韓·中·日 3國 해상무역을 주도한 張保臯 등 신라인의 활약상을 가장 리얼하게 전하는 제1급 史料(사료)이다. 과거 국내 TV 방송에서 작가 崔仁浩(최인호)씨의 소설을 原作으로 한 大河 드라마 「海神(해신)」이 방영되었지만, 만약 「순례행기」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시도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찍이 駐日 미국대사를 역임한 하버드대학의 碩學(석학) 라이샤워(Edwin O. Reishauer)는 「순례행기」를 「극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행문」이라는 자리매김과 함께 1600개의 註釋(주석)을 붙여 영어로 번역했다. 특히 라이샤워는 신라인 張保臯를 「해상무역왕국의 君主」라고 찬양했다.

세상의 전부였듯이 그 당시 우리에게도 동북아가 전 세계였으므로 해상왕 장보고는 세계를 재패한 것이다” .5)

정부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서의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보다 보석보다 소중한 역사속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고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200년 전에 바다를 통하여 부를 창출한 장보고의 꿈을 다시 일구어 오대양을 무대로 해양경제대국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장보고와 관련한 문헌, 연구보고서 및 각종 논문 등에 수록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였다.

사실상 장보고에 관한 국내적 문헌은 거의 없는 관계로 중국의 신당서, 일본의 신 일본사기 및 세계적으로 동양사의 권위자인 미국의 에드윈 오 라이샤워(Edwin. O Reishauer)⁶⁾ 하버드대 교수가 1955년 발표한 논문 「円仁의 唐여행기」와 국내 장보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장보고의 생애와 해상무역활동의 주 근거지였던 청해진의 설치 목적과 성격, 청해진 세력의 기반, 청해진 세력의 성격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해상무역 항로개척하고 중국과 일본 3국간 교역은 물론 이슬람까지 교역하면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던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의 진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장보고 재조명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배경 및 주요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5) 1998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 국정과제추진 상황보고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상왕 장보고의 업적에 대한 재조명,평가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말씀이다.

6) 미국 학자·외교관. 일본 도쿄[東京(동경)] 출생. 하버드대학에서 중국과 일본 역사를 공부했으며, 1950년부터 1981년까지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1961~1966년에는 주일미국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의 언어와 역사에 정통하여 이에 관한 저서가 많으며, 중국어 등에 관한 영어표기법인 <라이샤워 표기법>을 창안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장보고와 청해진 설치

제1절 장보고의 생애

장보고는 우리나라 역사상 특기 할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생애에 관한 기록은 희소하고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그가 죽은 300~400년 후에 기록되었고 그것도 중국 사서인 신당서(新唐書)의 내용을 빌어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여 진다고들 말한다. 장보고가 신라왕실에 모반을 꾀했다는 사료들이 불태워졌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의 출생년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장보고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 측 기록에는 궁복(弓福), 궁파(弓巴), 장보고(張保臯)로 되어 있고, 중국 측 기록은 모두 장보고(張保臯), 일본에서는 장보고(張寶高)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신라 관습상 평민은 성(姓)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보고가 중국에 있을 때 궁복의 '궁'자와 비슷한 장씨라는 성(姓)을 갖게 된 것이고, '보고'라는 이름은 '복(福)'의 음을 그대로 따라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장보고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문성왕(文聖王 839~856)의 차비로 장보고의 딸을 맞이하려 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그가 해도인(海島人)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섬사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그의 고향은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오늘날의 전남 완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가 해상왕국의 근거지를 하필이면 청해진에 설치하였던가 하는 점이며, 둘째로 자기보다 10세 가량 어린 동향(同鄉) 후배 정년(鄭年)이 뒷날 당에서 실직하여 사주(泗州)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고 있다가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청해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점을 들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으로 성장한 장보고는 정년과 함께 풍운의 꿈을 안고 당으로 건너가서 30세쯤에 서주(徐州)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이라는 군직(軍職)에 올랐다. 무령군이라는 군단명이 805년에 처음 생겼으니,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직에

오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805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그가 당나라에 건너간 시기는 일단 805년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장보고가 신라에 귀국한 시점이 828년이었으므로, 그의 재당(在唐) 기간은 20여 년간으로 압축될 수 있다.

장보고의 몰락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중앙정치에의 진출 야망, 특히 납비(納妃) 문제가 유산된 데 있었으나, 이 밖에도 서남해안지방의 군소해상 세력들의 장보고에 대한 반발을 생각할 수 있다.

염장에 의해 암살당한 장보고의 사망연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는 846년으로, 일본측 기록에는 841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측 기록인 엔닌의 일기에서 그가 장보고의 죽음을 의미하는 국난을 당해서 중국 연수의 신라방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841년 11월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최광식외, 2003: pp.14-23에서 재인용).

제2절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1. 청해진 설치의 목적과 성격

우리나라에서의 군진은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인 동시에 군사상 요충으로 삼국시대부터 설치되어 왔다. 대체로 서·남 해안변과 섬이나 강변에 두고, 외적의 방어와 해적들의 소탕 또는 항로의 보호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했다.

신라시대에 설치된 ‘진(鎭)’⁷⁾은 그 설치연도와 위치 등이 확실한 것은 5개 뿐이다. 삼국통일 이전 태종 무열왕 5년(658) 말갈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강원도 삼척에 설치된 북진(北鎭) 이외에는 모두 신라하대에 그것도 서·남해안 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최근영·민덕식, 1985: pp.34-36). 이는 9세기 전반기부터 부쩍 늘어났던 해적들의 준동을 크게 반증하고 있다. 선덕왕 3년(782년)에 설치된 패강진(溟江鎭, 평상, 828년) 당성진(唐城鎭, 남양, 829년)

7) 국토를 방위할 목적으로 설치했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임.

혈구진(穴口鎭, 강화, 844년) 등은 신라 혼란기에 자주 출몰한 해적들의 소탕과 해상교통로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여러 견해들이 있다. ‘나·당·일 삼국간의 무역을 독점하겠다는 포부’ 때문이라는 견해(이영택, 1979: pp.80-81)와 ‘김헌창 계열의 반항적 세력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의견(金東洙, 1982: p.43), ‘노비무역의 독점책(요시노 마코토/한철호, 2005: p.321), 또는 ‘서남해변의 지방 호족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日野開三郎, 1988)’ 등이 그 대표적 의견이다.

그러나 두목의 『변천문집』에 보면 그 표면적 목적과 동기는 명백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은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가 국왕(흥덕왕, 826~835년)을 배알하고 “중국도처에 신라인이 잡혀 와서 노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국왕은 그에게 군사 1만인을 주어 그의 청대로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신라인을 잡아 가는 해적들이 없어졌다’ 고 되어있다.

이 기록을 보면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와 청해에 진을 설치한 목적과 동기는 자명해진다. 그러나 청해진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청해진의 정확한 설치 연대나 군졸 1만 명의 성격, 그리고 ‘청해진 대사’의 명칭 등이 곧 그것이다. 『신당서』 신라전에서나 『삼국사기』의 사료에서도 두목의 글을 옮겨 쓴 타인지 내용들이 비슷하여 의문을 풀어줄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권10 흥덕왕)』의 기록에서 청해진의 설치를 일단 828년으로 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828년 4월에 ‘청해진 대사를 궁복으로 삼았다’ 라고 한 내용에서 어찌면 그는 828년 이전에 이미 귀국하여 완도지방에서 신흥세력가로 군림하면서 ‘청해진 대사’라 자칭하고 국왕을 배알하여 자신의 세력을 신라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받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이기동, 1985: p.100). 그것은 그의 중국에서의 경력과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미루어 보아 청해진이 국가의 공식기구라기 보다는 장보고의 변진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국왕이 준 ‘군졸 1만 명’에 대한 성격이 문제가 된다. 당시 신라의 군정상황과 사회전반의 사정으로 보아 변경 해안지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1만 군대를 장보고에게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에서도 청해진의 군사조직을 강조하고 있다거나 그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장보고는 국왕으로부터 이미 그의 세력권 하에 두었던 완도 일원의 변방 사람 1만 명에 대한 지배를 정치적으로 인가 받아 일종의 민병 조직으로 청해진을 설치하고 다스려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신라 병제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군사력에 의한 국가통제는 약화되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세력은 당나라 변진과 비슷하다. 그가 장사를 사랑하고 사병양성에도 열심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해진 휘하 장병들과의 관계도 의제적 가족관계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당대 변진의 아군(牙軍)집단에서 흔히 있었던 상하관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9세기 초 신라의 정치·사회상과 청해진 설치의 지리적 입지 여건이 어떠하였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하대는 왕위쟁탈전으로 왕권은 땅에 떨어져 중앙 통치는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귀족들의 사병 양성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호족세력도 성장해 가더니 815년의 큰 기근으로 822년 끝내 김헌창의 난으로 이어졌다.⁸⁾

이 때는 해적들도 준동하여 신라의 곡량을 운송하는 선박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라인을 잡아다 중국에 파는 행위가 극성하고 있었을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보고는 중국에서 축적한 부와 평로치청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할 수 있었다.

장보고가 완도에다 진을 설치한 이유는 그곳이 그의 고향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지리상으로 완도는 그 시대 범선 항로의 요충이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완도는 중국 산둥성의 적산포와 일본 하카다에 무역 근거지를 두고 삼국간의 무역은 물론 이슬람세계와의 무역도 독점하려는 그의 큰 야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곳은 중국에서 왕도 경주의 해상관문인 울산·포항만으로 이어지는 신라인의 남해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점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유 하나를 더 들어본다면 완도는 왕경과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귀족세력과의 충돌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해상무역에 전념할

8) 『三國史記』 권10 憲德王 14년(822) 3월조.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완도에다 진을 설치한 이유는 해적을 소탕하여 신라 양민을 노비로 매매하는 일을 막으려는데 있었고, 나아가 연해안 교역은 물론 동아시아세계의 해상무역을 독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김문경, 1998: pp.83-86 재인용).



<그림 2-1> 청해진의 본영으로 추정되는 완도의 장도 전경

2. 청해진 세력의 기반

장보고 세력의 바탕은 그가 쌓아 올린 막대한 재부와 강력한 군사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청해진 사람들과 신라방 사회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선박과 선원 그리고 조선술은 동아시아 세계의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고, 또 해적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그들의 해운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기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군사력이었다.

장보고 세력의 형성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다시 그의 전기와 연년의 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입신에서 청해진 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당시의 나·당 사회상에 비추어 가면서 고찰해 보면 그의 세력형성 과정과 기반을 대강은 추정할 수 있다.

장보고가 무령군을 떠난 해는 대개 821년 전후라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온 해는 늦어도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 4월 이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6~7년간은 당 나라의 적산포 일원을 중심으로 무역에 종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엔닌의 일기에서 그 가능성을 추정해 낼 수 있는 내용을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다.

엔닌은 적산 법화원에서 일본에 다녀 온 신라 환속승 이신혜(李信惠)에 관한 이야기를 그곳 스님들과 나누고 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장대사는 덴조오 원년(824년) 일본국에 갔다 돌아올 때 이신혜를 배에 태워 당나라로 귀환하였다’ 기록하고 있다.⁹⁾ 이 ‘장대사’를 장영(張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이영택, 1979: pp.119-120), 글의 전체 뜻을 보면 장보고가 틀림없는 것 같다.

엔닌은 회창 5년(845년) 9월 22일자 비교적 짧은 일기에서 10곳이나 ‘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장영을 가리킬 때는 그저 ‘대사’라고만 호칭하는 반면 단 두 곳만은 ‘설대사’(薛大使)·‘장대사’라고 하여 앞에다 성씨를 첨가하여 전자와 구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설전(薛詮)과 장보고를 장영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의 장영은 바로 엔닌을 적산원 사장(寺庄)에 머물게 한 사람이고 그곳 일원의 ‘구당신라소’ 압아(押衙)이며 엔닌과는 자주 만나고 있었다. 그 반면 장보고는 이미 죽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설전은 멀리 초주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엔닌은 성씨를 붙여 서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장대사’가 장보고라야만 824년 이후 이신혜가 적산 법화원에 있게 된 앞뒤 사정의 설명도 자연스럽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지꾸젠의 태수 오노(小野末嗣)가 장보고에게 보내게 된 서신의 내력도 분명해 진다. 둘 사이 종전에 아무런 교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청익승’ 엔닌의 소개장을 장보고에게 써 보낼 까닭도 없고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미루어 생각해 보면 장보고는 일찍이 일본의 북큐슈(九州)의 하까다(博多) 지방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관리들과도 친분관계를 맺고 그의 무역기지도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장보고는 연해안 교역은 물론 일본과의 교역에서 큰 부를 축적하여 이미

9) 會昌 5년(845) 9월 22일조.

820년대의 전반에는 적산포에다 그의 원찰이며 무역기지인 적산 법화원(法華院)을 세우게 된 것이라 짐작된다. 적산포는 바로 산동반도 연해안의 신라인 마을과 동중국 연해안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고, 대운하변의 신라방을 이어주며, 당과 신라일본을 연결하는 항로의 시발점이며 기착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엔닌이 본 대규모의 신라인 사회의 사람들, 중국 연해안에서 활동하던 교역상인들, 그리고 국제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가 다 동서 세계무역의 초기단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었던 신라인들이다. 엔닌은 중국을 여행한 일본인 구법승이다. 결코 재당신라인 사회를 의식적으로 과장하여 기록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가 산동반도 동쪽 연안을 여행하면서 그 많은 거룻배¹⁰⁾를 보았지만 그 가운데 당나라의 것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 이 때의 중국인들은 세계무역에 능동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는 않았다. 페르시아-아랍 상인들이 가지고 온 진귀한 화물들은 중국에 진출한 신라상인들에 의하여 신라와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당시 중국의 큰 무역 항구이던 양주나 광주에는 서방세계의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발자취는 이곳으로부터 동쪽이나 북방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대신 신라인들이 중국의 북쪽 연해안과 동쪽 일본까지 그들의 손을 뻗쳐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인 무역상들을 장보고는 점차적으로 통합하고 조직화하여 하나의 큰 세력으로 결집시켜 나갔던 것이다(김성훈, 2001: pp.25-27).

중국 현지의 지휘자는 문등현의 ‘구당신라소’ 압아(押衙) 장영이었고 무역실무자는 청해진 ‘병마사’ 최훈(崔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적산포를 중심으로 한 장보고의 일대 세력이 장영을 관리자로 하여 형성된 셈이다.

여러 사서에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할 당시 국왕은 ‘병졸 만인’을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인원으로 그는 세력의 기반이 되는 군사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만이라는 수는 그 당시 신라의 모든 상황으로 보아 실제의 수는 아닌 것 같다. 대체로 ‘대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정(軍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광수, 1985: p.71).

따라서 그 수는 그의 세력권 하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일정지역의 주민에 대한

10) 정박선과 육지간의 연락 담당하는 잠역선임.

지배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장보고 사후 일본으로 망명해 온 어려계(於呂系) 등이 자기들의 신분을 밝힌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장보고가 거느리고 있던 도민’ 이라면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¹¹⁾

이로 미루어 보면 장보고는 대체로 완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서의 주민을 지배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청해진은 지금의 장좌리(長佐里) 일대가 그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장좌리에는 그 당시의 유물이며 무덤 등이 남아 있고, 그 앞에 있는 장도(將島)에는 그와 관계되는 유적인 성지와 목책의 흔적이 남아 있어 쉽게 추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완도 인근에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장도는 마치 이들 섬을 이어주는 바다 길의 초소처럼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장보고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청해진을 진수하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보아도 장도나 장좌리 일대에는 군사 만 명을 주둔시킬 장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도의 장좌리 일대는 청해진의 총사령부가 위치하였던 곳으로 짐작되며 그의 관할 영역은 지금의 완도군·강진군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도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 그의 세력이 크게 신장되었을 때는 무주(광주) 지역까지 그의 세력권에 들어갔던 것 같다. 그의 휘하에는 무주 출신 염장(閻長)이 있었고, 그들이 처음 중앙정부군과 싸운 곳도 바로 무주 철야현(나주)이었기 때문이다.

신라하대에 오면 병제의 붕괴로 중앙귀족은 물론 주도독·군태수·현령 등 중앙에서 파견된 귀족관리들도 사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지방의 옛 족장이나 촌장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이기백, 1974: pp.260-262). 청해진의 군대도 이러한 군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무령군 시절의 경험과 장사를 사랑한 그였으므로 그는 휘하에 강력한 군졸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청해진에는 장보고의 사병 이외에도 837년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청해진으로 망명해 온 우징(祐徵, 신무왕)의 잔병과 그를 추종한 자가 데리고 온 병력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838년 2월 ‘병사를 모집하여’ 뒤따라온 김양(金陽)의 병졸과 같은 해 귀순해 온 김량순(金亮詢)의 무주군(鵝州軍)도

11) 『續日本後紀』 권11 承和 9년(842) 정월 10일조.

가담하였으니 전체 망명군졸의 수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외래 군졸은 망명자의 사병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장보고의 휘하 군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실전경험이 있었던 병력까지도 가담하였으니 청해진의 병력이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838년 12월 무주를 공격한 5,000병력과 남원 싸움에서 승리한 군사는 장보고의 사병들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그의 휘하에는 상당한 수의 군졸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의 부하에 6효장(驍將)인 염장·장변·정년·낙금·장건영·이순행이 있었고, 이들에 의하여 군진이 편성되어 군용이 매우 융성하였다. 특히 김민주(金敏周)의 정부군을 무주에서 격파한 낙금과 이순행이 거느린 기병 3,000명은 청해진의 정예군으로 짐작된다.¹²⁾

이들 6인 지휘관들의 내력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분명치가 않다. 중국에서 함께 무령군에 있으면서 군중소장이 된 정년 이외의 5명의 신상은 그저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병조직에서는 군의 지휘관들은 통수자의 일족이 중심을 이루며 그밖에는 의제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자들이다. 정년과 장보고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사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장변과 장건영은 그의 일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당에서 함께 온 군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김성훈, 2001: pp.4-6).

염장은 무주사람이다. 841년 장보고를 암살한 뒤 한때 청해진을 지배한 자이기도 하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장보고가 청해진을 창설하기 전 아마도 무주지방을 중심으로 노예무역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지방의 군소무역업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장보고의 설진으로 불만을 품은 채 그의 부하가 된 자로 추측된다.

낙금과 이순행은 분명치는 않으나 그들의 이름이 중국식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당신라인 출신으로 장보고와 함께 귀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보고 휘하의 재당신라인 중에는 다재다능한 인물들이 많았다. 행정에 능통했던 압아장영, 총관 유신연, 설진 그리고 국제무역의 전문가 최훈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장보고는 이들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였다. 6효장 가운데 염장만이 장보고와 가장 인연이 멀었고 또 처음부터 원한을 맺었던 사이였다.

12) 『三國史記』 권10 閔哀王 卽位年(838) 12월조.

(김성훈, 2001: pp.8-11).

청해진 군사력의 기반은 ‘군졸 1만’, 즉 완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도서의 주민 등으로 해운교통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토착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해상교통로와 청해진을 지키는 정예병력 이외에 이들은 나·당·일 삼국간의 무역과 연해안의 교역 등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종의 민병조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사병적 특수집단이라고 생각된다(김성훈, 2001: pp.4-6; 김문경, 1998: pp.90-97 재인용).

3. 청해진 세력의 성격

장보고 세력은 우선 지역별로 보면 크게 두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는 당나라 산둥반도의 적산촌 일원과 운하변을 중심으로 해운력에 바탕을 둔 신라인 촌락과 신라방 사람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신라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청해진을 근거로 성장한 세력들이다. 이 양 지역은 당시 양국의 정세로 보아 장보고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

이 두 곳은 모두 그 나라의 변방에 위치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배나 간섭이 소원하였는데, 특히 산둥반도는 오랫동안 변진의 발호(跋扈)가 극심한 곳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곳은 신라와 당을 이어주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이며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기도 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간의 무역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장보고세력이 가장 좋아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특히 산둥반도는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변진이 55년 간이나 군림했던 매우 이질적인 곳이다. 골품체제에 의하여 억눌려 있던 신라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모여들 수 있었던 최상의 지역이기도 했다. 청해진 세력의 6효장 가운데의 5명은 적어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였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두 곳의 신라인 집단은 단결력이 강한 이주민이며 해도인이었으므로 타국에서의 동족의식이라든가 나라 안에서는 동향이라는 점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쉽게 결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이와 같은 양 지역의 특성과 그곳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그의 세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장보고 세력의 기반은 다른 사병소유자가 형성한 세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코 설진 당시까지는 중앙귀족이나 지방 세력가는 아니었다. 그 세력의 축 가운데 하나는 신라본국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탈해 간 세력으로 당 나라에서 해운력을 바탕으로 한 외래 세력에서 비롯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라조정으로부터 소외된 서남해안의 해도인들, 곧 노예상인으로부터 끌려간 간 사람들이 그 한 축을 차지한다.

장보고는 이러한 이탈세력과 소외된 자들을 규합하고 결속시켜 그의 세력으로 형성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세력은 다른 어떤 지배세력보다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세력집단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신라군제와는 다른 조직체계와 독립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약매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장보고의 세력이 아무리 이질적이고 독립적이라 해도 결코 신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완전 이탈은 아니었다. ‘칭해진 대사’로 임명된 사실은 곧 신라에의 귀속을 의미한 것이다.¹³⁾ 마치 당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행정적·군사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당 나라 후기의 일부 변진과 같은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후일 ‘감의군사 실봉 2천호’로 봉해진 사실에서도 그 세력의 독자성은 명백해 진다. 이 때의 분봉은 곧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독자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군사’라고 하면 바로 당 나라 군제의 ‘절도사’나 ‘감군사’ 등을 연상케 하는 직함이다. 또 뒤에 그에게 주어진 ‘진해장군’이라는 호칭도 매우 중국적이며 특히 ‘장군’이란 호칭은 뒤에 가서 독립된 호족이나 성주가 자칭하던 명호이기도 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 세력의 바탕은 ‘군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세력은 군사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칭해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라의 어떠한 군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당나라 변진의 병제 일부가 원용된 듯한 칭호가 보인다. 곧 ‘대사’와 ‘병마사’가 그것이다. ‘대사’는 이미 논급한 바이지만 ‘병마사’의 경우 칭해진에서는 국제무역과 관계된 직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회역사

13) 『三國史記』 권44 열전4 金陽傳.

(廻易使)·매물사(賣物使)의 직함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선단을 총괄한 인물은 ‘병마사’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장보고의 무역선단도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조직으로 편제·운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청해진에는 아군(牙軍)과 같은 친위 상비군도 있었을 것은 물론이다.

장보고 군진의 군사조직과 직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역은 병마사를 우두머리로 그 예하에 회역사·매물사가 전담하였고, 군진은 6효장을 중심으로 군조직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의 군대를 가리켜 ‘군용이 심히 융성하였다’고 한 표현은 그것이 매우 조직적이고 능동적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장보고는 완도에 설진하면서 그 인근의 넓은 지역까지도 지배 하에 두었지만, 그곳 농업생산에는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유는 그 생산력으로는 수많은 사병을 양성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경제적 기반은 아무래도 국제무역에서 얻은 동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해운기술자를 총괄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원근해의 교역과 운송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보고의 경제력은 무역에서 얻은 동산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보고 예하에 있으면서 무역에 직접 종사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신라촌·신라방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해외에다 무역사무소(적산촌·하까다)를 두고 압아·총관·촌장을 비롯한 관리와 뛰어난 선원과 우수한 선박을 보유하고 유능한 통역관을 갖춘 이들 집단이,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한 군사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삼국 간을 중횡무진으로 왕래하면서 교역한 물량과 얻은 재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중세봉건사회를 근대사회로 발전시켜 나간 사회계층 가운데의 하나가 원거리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던 상업자본가세력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제무역에서 얻은 부의 막대함을 족히 알 수 있을 것이다(김문경, 1998: pp.97-100 재인용).

제3장 장보고의 해상무역 활동

제1절 장보고의 신 해상무역항로 개척

장보고는 신라의 청해진(淸海鎭)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 산둥반도의 적산포(赤山浦), 일본 북큐슈의 하카타(博多)에 해외 거점항로를 개설하여 3국을 연결하는 ‘남방항로’를 개척하였다. ‘남방항로’는 경주에서 가까운 항구인 감포, 영일만이나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뱃길을 서북방으로 돌려 산둥반도 쪽으로 가거나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양자강 입구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항로인 동시에 ‘하카타’로 가는 직항로였다.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교역로는 기존의 ‘북방연안항로’와 ‘황해횡단항로’가 있었다. 이 항로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 하대에 들어서는 주로 ‘황해횡단항로’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다. ‘황해횡단항로’의 경우 당나라와 신라를 잇는 최단거리이지만 예성강에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까지 7백리 길은 육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도로가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험준한 조령산맥을 넘어 조공품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육로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남해안을 거쳐 경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서 서·남해안이 해적들의 수중에 들어가 영일만과 울산만에서 남해·서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막혀있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육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방연안항로’는 한·중을 잇는 가장 오래된 항로이다. 이 항로는 중국의 산둥반도 등주를 출발하여 동북쪽으로 발해만의 노철산 하구와 대련만의 동쪽, 압록강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 요동반도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대동강 하구와 초도, 웅진만, 강화도, 덕적도 등을 거쳐 남양만에 이르는 항로이다. 1천 3백리를 항해하여야 할 정도로 먼 거리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연안을 따라 항해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용되어왔다. 특히 당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친다든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의례적인 교류를 할 때 흔히 이 항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남방항로’는 바닷길이 거칠어 원양항해에는 부적합한 항로였으나,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로 새로운 교역루트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청해진은 이 교역루트의 중심지였다. 청해진이 설치된 완도군은 당시 범선 항로의 요충지였으며 중국 산둥반도와 왕도인 경주의 해상관문인 울산 포항만으로 이어지는 ‘남방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청해진은 당과 일본의 중계무역 기지였을 뿐 아니라 대외교역의 관문인 요즘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항¹⁴⁾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장보고가 ‘남방항로’를 개척한 이유로는 첫째, 삼국통일 후 신라의 수출입 상품의 품목에 변화가 일어난 데다 도자기 등 대량의 화물이 출현한 것이 교역루트의 변경을 가져왔으며, 대량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인 교관선(交關船)¹⁵⁾을 건조하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한 것도 ‘남방항로’를 개척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둘째, 신라가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할 수 있는 국제여건이 마련되었다. 평로치청(平盧淄靑)¹⁶⁾의 방해로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엽까지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이 거의 단절되었으며 일본과 당나라와의 공무역도 끊긴 상태였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치권 약화로 해적들이 한반도 남해와 서해안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819년 평로치청이 멸망한데다 청해진의 설치로 한반도 서·남 해안 일대에서 활동했던 해적들이 소탕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상질서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발해의 건국으로 한반도 경기만과 중국의 산둥반도를 잇는 기존의 통상로인 ‘황해횡단항로’의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넷째, 9세기 초에 당나라의 경우 양주, 명주 등이 이슬람 상인이 모여드는

14) 외국의 화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관세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항구. 자유무역항이라고도 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보호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무역항의 전지역 또는 일부에 한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화물의 자유로운 출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구역에서는 수입화물의 적재·양륙(揚陸)·보관·분류·가공을 실시하며, 해운·창고·보험 등 상항업무(商港業務)의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15) 신라시대 장보고(張保臯)가 당(唐)과의 교역에 이용한 무역선. 흥덕왕 때 장보고는 완도(莞島)를 중심으로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고 대사(大使)가 되어 해적을 소탕하고 재당(在唐) 거류민을 보호하는 한편, 당과 무역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당에 파견하던 선박을 말한다.

16) 고구려계 유민인 이정기(李正己) 등 이씨 일족의 세력권이었던 산둥반도의 당나라의 치외법권 번진(藩鎭) 중 하나

항(港)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 지역과 신라를 직접 연결하는 항로의 개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도자기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 중국의 남부 저장성이다. 이곳이 동중국해 항로상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다섯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경주가 계속해서 수도였던 점도 ‘남방항로’를 개척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림 3-1> 신라시대 기존항로 및 개척항로

제2절 장보고의 해상무역 현황

장보고는 동북아 정세에 맞추어 조직화된 민간 차원의 무역거래를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무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장보고 선단은 단순히 무역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간 무역의 대행, 3국 정부 공시사절 안내, 여객운송, 선박건조와 수리, 통역, 선원제공, 종교, 문화지원, 실크 청자 개발 무역 등 각종 상업 서비스 및 문화사업까지 수행했다(김성훈, 2003: p.293). 그들은 광범위한 지역, 장기간의 물류기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래 초기 신용거래의 차원으로까지 고도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청해진은 국제적 수준의 해상 교역지답게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다. 당의 주단, 약재, 공예품, 도자기, 서적과 페르시아의 향료, 상아, 보석류, 카펫트, 유리제품까지 거래했다는 기록이 있다. <표 3-1>은 당시 장보고 선단이 교역한 물품으로 품목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청해진은 해외교역 품목의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각 지역의 시장을 적극 활용했다. 우선 서방 이슬람 상인들의 북방진출 한계선은 양주였다. 이들이 가져온 진귀한 책, 남방 문물들은 당의 소비시장인 낙양, 장안 등으로 운송되기 위해 양주, 초주 등지에 집결되었다. 당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상품의 일부 운송은 신라인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일본으로 교역되는 화물운송도 거의 신라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당, 일본, 페르시아 상인들로부터 유입된 문물의 판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붓짐 장사법, 5일장, 7일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활용하기도 했다.

1. 당(唐)과의 교역

장보고의 중국내 무역활동 거점은 산동반도의 적산촌이었다. 그것은 당시 국제무역에 종사하던 상인이나 연해안과 운하변을 중심으로 교역하던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 적산촌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세운 적산 법화원은 그의 월찰인 동시에 재당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신라, 당나라를 내왕하는 사신, 관원들과 구법승, 순례자, 사인들의 기숙처이기도 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한 뒤로는 '대당매물사'의 이름 하에 무역선단 '교관선'을

당으로 파송하였다. 엔닌이 법화원에 머물던 839년 6월 하순에 ‘대당매물사 최훈이 거느린 ‘교관선’ 2척이 적산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과 때마침 신라로 떠나는 당의 신무왕 위문사인 오자진 등 30여명이 법화원에 기숙하고 최훈이 ‘병마사’와 상봉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엔닌은 최훈 매물사의 무역선이 적산포에서 유산포로, 거기에서 다시 양주로 왕래한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당시 양주는 장강 하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이며 신라 무역상인들을 비롯하여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거류하던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이기도 했다. 동서를 대표하는 무역상들이 양주에서 ‘남해박래품(南海舶來品)’을 자연스럽게 교역했으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장보고 선단이 거래한 수입품은 진골 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박래품(舶來品)이었을 것이다. 이밖에 당 말의 민간 교역품이라고 생각되는 값비싼 상품 이름이 최치원의(875~?)의 ‘계원필경’ (권10, 18)에 적지않게 기록되어 있다. 인삼, 천마를 비롯한 약재와 금은동 공예품, 금은 그릇, 금어대, 금은술잔, 은제 등로, 금은장 벼루갑과 벼루대, 은연적, 은제 차그릇, 금동 자물쇠, 금동 가위, 은수저, 고급비단, 무늬비단, 옥허리띠, 칠기그릇, 물소뿔공예품 등 많은 귀한 물품명이 나온다. 이것들도 장보고 시대의 무역상인들에 의하여 교역된 상품들이었다.

2. 일본과의 교역

장보고는 당시 일본의 북큐수의 하카다 (搏多)에 설치되어 있었던 다자이후 (大宰府)를 중심으로 대외교역을 하였다. 장보고가 일본에 파견한 무역사절단을 회역사(廻易使)라 하였는데 하카다에 무역 근거지를 마련하고 일본 관원들과 직접 교역을 하기도 했다.

장보고가 직접 운송시켜 일본 정부에 진상한 물품은 말안장으로 840년 12월이다. 말안장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열기 위해 바치는 공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무역품으로도 취급가능한 물건이었다. 군·관·민 모두가 기마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광범위 했다.

장보고선단의 상품들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때로는

웃돈을 주고 상품을 사려는 사람도 있으며, 무역규모도 보통이 아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다이쵸강이 다이후에 명하여 말했다. 신라인 장보고가 작년 12월 말안장 등을 바쳤는데, 장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감히 문득 공물을 바치니 옛 규범을 상고해 보면 정당한 물건이 아니다. 마땅히 예의로써 거절하여 조속히 물리쳐 보내도록 하라.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므로 민간에 맡겨 교역할 수 있게 하라.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구매하는 값을 여기고 다투어 가산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 (속일본기, 권10, 841년 2월 27일).

일본에서 수입된 화물로는 명주(絹)가 있었다. 장보고가 일본에서 무역할 때 고급관료가 외국화물 구입을 위해 그 대금을 명주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가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명주의 원료로 생각되는 면이 있었다. 768년 일본정부가 대신들에게 신라의 무역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면을 지급했다. 면은 8세기 후반의 교역상품이긴 하지만 9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취급된 물품이었다.

838년 일본의 견당사절단 고위관리가 면을 휴대하고 있었다. 장잠판관(長岑判官)이 당나라 장안에 입경할 때 소지한 면을 양주에 남게 된 엔닌에게 맡기고 있다. 이 면은 상품교환 수단으로 쓰였을 것이다.

관품 5위 이상의 일본귀족들이 신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록하여 대장성 또는 내장료에 신청하였던 ‘매신라물해(買新羅物海)’란 문서(작성년도 756년)가 발견되었고 이 문건에는 신라와의 교역품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수출품 중 값비싼 금, 은, 철과 금속공예품은 차치하고라도 신라가 서방과 남해제국에서 구입한 향료, 약물류, 낙타 등 진귀한 물건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대목이다. 종래 일본에서는 서, 남방 문물거래가 중국에서 직접 수입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신라를 통한 전래가 많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장보고 역시 청해진에 자유무역항을 만들고 신라,

당나라, 일본은 물론 이슬람 등과 중계무역을 통해 해상교역을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이슬람과의 교역

신라 무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한 일이다. 한국이나 중국 측 문헌에서는 신라와 이슬람 여러 나라가 직접 무역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슬람 쪽의 문헌인 슐레이만의 ‘중국의 인도소식(851년)’ 과 아 마소디(?~965)의 ‘황금초원과 보석광’ 등에는 아랍상인들의 신라 내왕 사실과 신라 견문에 관한 기록과 함께 신라로부터 수입한 상품품목이 실려 있다. 이 사료에 따르면 신라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었던 물품 가운데 검, 표피, 인삼, 생강 등의 상당수가 이슬람으로 팔려나갔다(김문경, 1998: p.153).

이 밖에 중동, 인도 지역에서 신라로 수입된 물품으로는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로마 유리기물과 페르시아 계통의 유리병 등이 있다. 이런 물품이 신라에 유입될 정도이면 당시 이슬람 상인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고급 사치품인 유리기물도 수입됐다. 또한 양모를 주성분으로 잡모를 섞어서 짠 문양 있는 페르시아 직물 구유나 답 등의 사용도 금지한 것으로 보아 대외 개방초기에는 이런 물품이 신라에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아랍 지역에서 유입된 서방세계의 진귀한 물품들이 광주 또는 양주 등을 통해 유입됐다. 이로 인해 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당서(권45, 25페이지)’ 에는 개원(713년)이래 장안, 낙양에서 이란계 문화,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 유물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김문경, 1998: p.160).

무역의 거점인 ‘번방’ 17)을 구축하고 무역권을 확대하여 가던 이들이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장보고와 자연스럽게 교역을 하였을 것이다.

17) 당시 광저우 등지에 이슬람상인의 거주구역을 말함.

<표 3-1> 신라의 국별 수출입 품목

구분	당나라	일본	이슬람
수출품	금, 은, 비단, 금은 세공품, 반황, 인삼, 과마하, 우황, 금대, 호표가죽	금, 은, 철, 곡물, 칼, 금은 세공품, 고급비단, 호표가죽, 포, 말, 개, 노새, 낙타, 약물류, 피혁, 병풍, 불상, 도료	명주, 비단, 검, 키민자우, 녹향, 노회, 말안장, 표피, 쿠란잔, 크라이브(인삼), 자되, 생강
수입품	공예품, 건축물, 고급비단, 의복, 금대, 은기, 동경, 금은 세공품, 자기, 차, 사화, 철기, 앵무새	황금, 명주, 무명도감, 실	목도리털, 금은실, 공작꼬리, 물총새털, 바다거북, 자단, 침향, 향료, 유향, 기름

자료: 이승영, 「21c 장보고 정신구현」 “장보고의 무역과 그 영광의 재현”, p150

제3절 장보고 해상무역활동의 의의

세계는 경제질서 재편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 진전으로 단일 경제권이 급속히 구축되고 있다. 상품은 물론 자본과 노동력이 국가 규제와 관세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진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속에 살고 있다. 장보고는 탁월한 국제적 식견과 적극적인 대외 지향적 사고를 갖고 해상경영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은 오늘날의 ‘세계경영’ 과 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장보고 해상무역활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로 복합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오늘날의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비교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진용을 형성하였다. 청해진을 본거지로 해상물류망을 구축하여 일본 하카다와 중국 적산, 초주, 연수항, 양주, 영파, 광주 등에 신라방, 신라소 등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신라-당-일본을 연결하는

단순한 무역업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무역대행, 공식사절 안내, 여객운송, 선박 건조와 수리, 종교와 문화지원 등 민·군·산 복합체제를 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보적인 가치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해진은 군사, 행정, 상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시하였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무역 전진기지를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당나라와 일본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포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지세력과 청해진에 거점을 둔 국내해상세력과의 원활한 연계를 꾀하였다. 당나라와 일본 거주 재외 신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단을 조직화하여 국제물류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원활한 자유무역 수행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하였다. 장보고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정신적 구심점이자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일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공유가치의 수단으로 불교 및 애족주의 정신을 도입하여 당에 법화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신라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도모하는 정신적 위안처이며 종교적, 민족적 단합의 장이었다. 또한 청해진에도 사찰을 두어 향로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셋째, 조선술 및 항해술 등 차별적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다. 장보고 휘하의 군사 및 무역선단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라의 발달된 조선술과 항해술 때문이었다. 당시 신라의 조선술과 항해술은 거의 동아시아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장보고의 경쟁우위는 유형적인 것 외에도 무형적인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해진이 보유한 인프라로 항해술과 조선술 외에 무역의 거래방식 등은 당시 해상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로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의 선각자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와 같은 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기존시장(레드오션)에서 경쟁하여 이기기보다는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창출되므로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이 필요 없는 게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보고는 기존의 골품제도가 존재하는 신분차별의 사회를 극복하고 오직

자신의 실력을 키워 왔으며, 청해진 설치와 해상교역 과정에서도 끝없는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가치혁신을 창조하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을 추구하였다.

제4장 장보고 재조명사업의 추진과 의의

제1절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 경위

장보고에 대한 명성은 국민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이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고문헌 상의 기록에 의한 사시안(斜視眼)적인 연구로 일부 학자들이 장보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피력한 것이 기인한다. ‘반역자’로 인식되어 왔던 장보고의 누명을 벗겨 준 사람은 김상기(金庠基) 교수이다. 그는 1934년 ‘진단학보’에 게재한 “古代의 무역형태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보고를 ‘해상왕국의 건설자’로 새롭게 평가하였다. 이후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에드윈 오 라이샤워(Edwin O. Reishauer)가 「円仁의 唐 여행기, 1955」에서 장보고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에서 1960년대 말부터 김문경 교수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장보고 연구는 1989년 11월 ‘장보고대사 해양경영사 연구회(손보기, 김문경, 김성훈 교수 등)’의 발족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의 역사현장 탐사와 발굴로 이어지게 되었고, 1992년 11월 세계 최초로 전남 완도에서 장보고 해양경영사 연구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장보고 관련 실증사학의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 되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은 1963년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그룹 고(古)이병철 회장이 영국의 해운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장보고가 국제 사회에서 해상무역왕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역사, 복식, 무구 등 전문가들에 고증을 거쳐 장보고의 표준영정<그림 2-1>이 제작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4년 장도 청해진 유적지가 사적 제308호로 지정 되었다.



<그림 4-1> 이종상 화백이 그린 장보고 표준영정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장도 청해진 유적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장도 복원 및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사업¹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에는 민간단체인 세계한민족협의회에서 중국 석도진에 장보고 세계 해양제패 기념탑이 건립되는 등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8년 7월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에서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한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부차원의 장보고 재조명·평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역대 정권별 장보고 추진사업 연혁은 <표 4-1>과 같다.

18) 문화재청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완도읍 장좌 ~ 죽청리간 장도 청해진 일대(사적제308호)에 706억원을 투입하여 장도 유적지 정비복원, 청해진 기념관설립 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 장보고 관련 추진사업 연혁

재임기간 역대대통령	주요내용
1962-1963 (박정희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영국의 해운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시 장보고가 국제사회에 해상무역왕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정부에 재조명·평가 건의
1979 (박정희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 표준영정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부에서 서울대학교 일랑 이종상 교수에게 의뢰하여 역사, 복식, 무구 부문 전문가들에 의한 7개월간의 고증 및 심사를 거쳐 장보고 영정을 제작후 문화관광부 표준영정 제21호로 지정
1984 (전두환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도 청해진 유적을 사적 제308호로 지정 (1984.8.29)
1989 (노태우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도 청해진 유적 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12.30~' 90.11.10 2차에 걸쳐 법화사지 발굴·건물지 5개소, 주름무늬병, 청자대접 등 - '91.9.3~2000.4.17 7차에 걸쳐 장도 발굴·청동화살촉, 卍자형 석축석렬유구, 석축토루, 돌출유구, 우물 등 ○ 장보고대사해양경영사연구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 단국대 석좌교수 손보기 - 상임연구위원(5명)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문경 숭실대 명예교수, 윤내현(단국대), 김정호(완도향토 문화진흥원장)
1991 (노태우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법화원의 장보고 영정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씨종친회에서 월전 장우성 화백에게 의뢰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영정 심의절차 없이 중국 현지답사 및 북경대학 교수들로부터 복식, 장신구 등의 자문을 구하여 제작
1992 (노태우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뮤지컬 『장보고 열리는 바다』 전국 26개 도시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 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 공연 : 극단 현대극장 ○ 제1회 장보고 대사 국제학술 심포지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992.11.19-20/완도군 - 주최 : 장보고대사해양경영사연구회/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후원 : 전라남도/완도군 - 주제 : 장보고대사와 고대 신라당일본 해사 관계

<p>1993 (김영삼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석도진에 장보고 세계 해양제패 기념탑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11월 세계한민족연합회장 최민자(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10만달러를 모금하여 건립 - 특징 : 탑 중앙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로 「장보고기념탑」이라는 6자의 글자를 새김 ○ '93년 3월 이달의 문화인물에 「해상왕 장보고 대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항만청에서 주관하는 해운의 날(3.13)과 연계하여 통일신라시대 해양문화의 개척자인 해상왕 장보고 대사를 선정
<p>1996 (김영삼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5.31 제1회 「바다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선상 세미나 및 장보고 유적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6.5.23 ~ 5.29(7일간) - 주관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p>1998 (김대중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7.10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시 대통령께서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한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의 필요성을 강조 ○ 서울경제신문 해상왕 장보고 특집 기획연재(총 30회) ○ '98.10.29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구상』을 수립하고 재조명·평가사업 착수
<p>1999 (김대중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1.21 해양수산부 내에 장보고기획단 구성 ○ '99. 9.30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99.11.12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설립

제2절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의 의의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그 시대적 상황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를 현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이해할 때,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역사로 되살아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라고 정의하고 있다.

UN 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로 인하여 해양의 분할 점유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바다영토」 확장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21세기 ‘신 해양시대’에는 해양력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¹⁹⁾

정부수립 후 60년간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계 10대 무역국 진입과 오대양을 무대로 하는 해양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했음에도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반면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해외로 진출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중진국에서 세계의 역사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외 진출과 해외 무역의 확대를 이루어 주는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즉 해양부국을 건설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경제를 번영시켜야 한다. 육당 최남선도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이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 그일 것이다” 라고 하여 해양 진취적 기상의 배양을 역설하였다.

장보고는 신라 말의 혼란기에 해적의 횡행으로 문란해진 해상질서를 바로 잡았고, 해외무역의 전진기지를 거점으로 중계무역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조공을 통해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 본격적인 민간 무역을 추구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장보고의 활약은 오늘날 우리가 일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당시 열악한 사회 환경과 어려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양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례를 보여준 훌륭한 위인이다.

장보고 재조명·평가 사업의 의의는 한 마디로 해양부국건설을 위한 국민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해양 지향적 기질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국가 융성을 주도했던 해양위인 장보고를 국민적 사표(師表)로 삼아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해양 진취적 기상과 도전의식의

19) 1994년 바다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 불리우는 해양법협약 출범은 국가관할권의 확대(Creeping Jurisdiction)로 상징되는 경제수역제도 도입되었다. 이는 바다의 구조가 ‘영해-공해’의 이원적 체제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반영된 ‘영해-공해-경제수역’ 다원적 체제로 동북아시아역에도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함양을 통해 21세기 세계 일류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 하기위한 사업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1. 추진사업 현황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9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내에 “해상왕장보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에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99년 11월 9일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평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²⁰⁾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학술, 기념물, 교육, 문화, 홍보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분야는 장보고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규명하여 재조명 사업의 역사적, 학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보고 연구자료 집대성 등 6개 사업이 있다.

또한 기념물분야에는 국민들에게 장보고 정신과 업적을 알리고 유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있다. 교육분야는 장보고의 활약상과 업적에 대한 정규교육 및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장보고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어린이용 장보고 위인전 제작 등 4개 사업이며, 문화분야에는 장보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 5개사업, 그리고 홍보분야에는 장보고 소개책자 발간 등 4개사업이 있다.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지금까지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연구사업 등은 계속 추진 중이다. 장보고 재조명 추진사업 현황은 <표 4-2>와 같다

20) <http://www.changpogo.or.kr/default.asp> (Last Access: 2007.10.27).

< 표 4-2 > 장보고 재조명 · 평가사업 추진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요예산(변경)				비고
		계	정부	지자	민자	
계		64,732	30,853	18,744	15,135	
학술	소 계(6개 사업)	4,586	4,586			
	장보고 역사자료 집대성	1,120	1,120			
	장보고 유적·유물자료 제작	377	377			
	장보고 학술연구 지원	2,089	2,089			
	장보고 연구회지 발간	416	416			
	장보고 학술발표회	272	272			
	장보고 국제학술 심포지움	312	312			
기념 물	소 계(4개 사업)	30,339	14,195	13,744	2,400	
	창해진 유적지 사업	26,300	13,150	13,150		사업계획조정
	창해 유민 이주기념비 건립	1,282	688	594		
	적산 장보고기념관 건립(사업종료)	2,400			2,400	
	장보고 무역선 모형물 제작(사업종료)	357	357			
문화	소 계(5개 사업)	22,527	5,457	5,000	12,070	
	장보고 애니메이션 제작방영(사업종료)	3,110	1,440			
	장보고 드라마 제작방영	15,450	350	5,000	10,100	
	장보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사업종료)	500	300		200	
	장보고 전시회	320	220		100	
	장보고 문화활동 지원	3,277	3,277			
교육	소 계(4개 사업)	2,237	2,052		185	
	어린이용 장보고 위인전 만화발간(사업종료)	285	100		185	
	교과서에 장보고 항목 수록	516	516			
	장보고 해외유적답사 지원	1,010	1,010			
	장보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종료)	426	426			
홍보	소 계(4개 사업)	5,043	4,563		480	
	홈페이지 제작운영	269	269			
	장보고 뉴스지 제작배포	1,811	1,811			
	장보고 소개책자 외국어판 발간	500	500			
	장보고 홍보물 제작배포	2,463	1,983		480	

자료: 해양수산부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보고를 청소년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 「리틀 보고짱」 개발, 어린이용 장보고 애니메이션 방영, 장보고 위인전 및 최인호의 소설 ‘해신’ 발간 등으로 일반국민에게 장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켰다. 특히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의 계승·발전시켜 21세기 세계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ASEM 2000 컨벤션센터 전면의 상징조형물<그림 4-2 > 건립과 (2000.5.31), 장보고의 새천년 밀레니엄 우표 발행 (2000.1.3), KBS에서 방영된 대하드라마는 ‘해신(2004)’ 등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는 국민들의 안방을 사로잡았던 ‘해신’은 장보고를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림 4-2> 무역협회ASEM 2000 컨벤션센터 전면의 장보고 상징조형물

한편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바닷가에 동상 높이 15.5m, 받침대 높이 15.2 m 크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보고 동상이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에 준공 예정이다<그림 4-3>.



<그림 4-3> 장보고 동상 조감도

2. 장보고의 유적·유물 분포현황

장보고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완도군 장좌리의 청해진 옛터<그림 4-4>, 서귀포시 법화사 터 등이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보고와 관련된 유적·유물은 다음과 같으며(해양수산부,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 p.320), 장보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자료제공을 위한 유적유물 도감 편찬과 아울러 영상물 제작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 국>

- 완도군 장좌리(將佐里) 장도(將島) 및 죽청리(竹의靑里) 옛 청해진 터, 지석묘, 상왕봉(象王峰)의 법화사 터 등.
- 강진군 대구면(大口面) 용운리(龍雲里) 청자도요지(신라말기 및 고려초)
- 김제군 벽골제(碧骨堤) 평야 일대 (청해진 주민의 강제이주 지역)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河源洞) 대포리(大浦里) 포구와 법화사 터

- 서남해안일대의 고대사찰과 구포구들(해남, 강진, 영암, 장흥, 무안, 함평, 해제, 법성포, 다도해, 변산, 서산, 당진 등)

<중 국>

- 산둥성 영성시(榮成市) 석도진(石島鎮) 장가촌(張家村), 적산 법화원(赤山法華院, 한글기념비 제막, 90.2.13), 정해위(靖海衛), 장가부(張家阜), 척산(斥山), 둔구촌(敦垢村, 김씨촌), 막야도(莫耶島)
- 산둥성 문등현(文登縣) 곤륜산록 서자진향의 신라승 무염사 터와 모평현 유산포(신라인촌 기념비 제막, 91. 7)
- 산둥성 청도(靑島) 노산 팔수하촌(八水河村, 옛 신라인촌)과 연대(煙臺)시 봉래(蓬萊, 신라인촌 및 봉래각, 신라 고대선박)
- 강소성 소주(蘇州) 박물관(청자), 진강(鎮江) 박물관(청자), 양주(揚州) 박물관(청자), 양주외성(羅城터와 청자), 회안(淮安, 옛 楚州)의 고말구(古末口, 신라인촌과 신라관터, 신라술), , 연운항(連雲港) 박물관
- 절강성 영파(寧波, 옛 명주) 하모도(河姆渡, 벼농사 유적지 및 고려관 터 및 정해현(定海縣) 신라외빈 접대 성터, 영파 월주요(越州窯, 영파박물관(청자), 진해(鎮海)시 목조선창(고대선박), 천태산(天台山) 국청사(國淸寺, 신라원), 신라촌(新蘿村, 옛 신라촌), 항주(杭州) 영은사(신라고승의 행각), 항주 박물관(청자), 주산(舟山)반도 보타도 관음원, 태주(台州) 신라촌
-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해외교통사 박물관(고대 선박), 하문(廈門) 도요지
-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고대 사찰들(신라인 승려 행각)

<일 본>

- 북규슈(北九州) 하카다(博多) 일대의 태재부(太宰府), 춘향신사(春香神寺), 대분현(大分縣) 팔반신궁(八潘神宮)
- 교토 히에이산 적산선원(赤山禪院), 원성사(園城寺), 삼정사(三井寺)



<그림 4-4>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

주: 소재지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면적 482,884㎡

자료: 완도군청

특히 완도가 청해진 유적지로서 속살을 내보인 것은 불과 46년 전, 1959년 남해안을 초토화시킨 태풍 사라에 의해서다. 흩에 묻혔던 청해진 유적의 일부가 거센 물살에 씻겨 모습을 드러냈다. 장도의 남쪽 해안을 따라 촘촘히 땅에 박힌, 지름 30~40cm의 나무기둥 행렬이 그것이다. 외적 방어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목책, 또는 선박 접안시설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소나무 기둥 행렬은, 탄소측정 결과 청해진 존속 시기와 같은 9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4 >

장좌리 남쪽 죽청리의 앞 들판을 주민들은 ‘한뜰’ (넓은 들)이라고 부른다. 청해진 군사들의 훈련장이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여기서 수많은 토기·자기·기와조각들이 출토됐고, 밭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지름 50여cm의 돌확²¹⁾이

21) 고추·마늘 등 양념이나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데 쓰는 연장으로, 형태는 돌을 오목하게 판 것, 넓적하게 판 것 등이 있으며 그릇 안쪽을 우툴두툴하게 구워낸 것도 있다. 주로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쓰이는 것으로, 큰 방아나 절구에 찧을 것이 못 되는 적은 양의 곡식을 찧는 데 사용되며 고추·마늘·생강 등의 양념을 갈기도 하고 소금 등을 뺏기도 한다.

남아 있다. 한뜰 아래쪽 바다와 만나는 지역은 주민들이 ‘배둥둥이’라 부르는 곳인데, 학자들은 이곳을 청해진 시대에 배를 건조하고 수리했던 지역으로 추정한다.



<그림 4-5> 완도군 장도에서 발견된 목척

주변엔 배를 띄우던 곳으로 여겨지는 둥근 석축의 흔적인 ‘부추원’, 감옥이 있던 자리로 전해지는 ‘옥터’, 장수가 올라가서 군사를 지휘했다는 높고 평평한 곳인 장대(일명 솔포등) 등의 지명도 전해온다.

죽청리 뒤, 완도의 지방으로 일컬어지는 상황산(644m)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에도 청해진 당시 유적지로 보이는 곳이 있다. ‘망대’라 부르는 평탄한 땅으로 장대와 한뜰, 장도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요지다. 학자들은 이곳을 배가 드나드는 것을 감시하던 시설이 있던 곳으로 추정한다. 주변에선 건물의 주춧돌로 여겨지는 자연석재들과 기와조각 등이 발견된다. 장좌리 뒷산의 법화사터, 관음사터, 당시 대규모 장터가 번성했다는 대야리 장터 등도 당시의 유적지들이다.



<그림 4-6> 완도 청해진 유적출토 소병형 :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제5장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보고는 1200년 전에 신라와 당나라, 일본의 무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와 중계무역을 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났던 신라인들의 강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시켜 막대한 부를 축적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다국적 기업의 모델을 추구하여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유사한 경제기구의 대안을 이미 제시하였다.

1994년 11월 6일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해양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바다영토 확보전쟁이 치열하다. 또한 세계 단일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술과 자본의 급속한 이동으로 세계를 향한 무역·교역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국가존립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장보고가 걸어갔던 길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 지식정보화의 무한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장보고는 신라만이 아닌 당시의 전 세계로 시야를 돌린 첫 인물이었다.

이러한 장보고의 활약은 오늘날 21세기 해양의 세기를 맞아 우리가 일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당시 열악한 사회 환경과 어려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여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양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례를 보여준 훌륭한 위인이다. 장보고 정신은 오늘날 글로벌리즘, 신자유무역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의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에 의해 주창된 가치혁신 이론인 ‘블루오션’ 전략이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블루오션’ 전략은 단순히 기업전략 뿐 아니라 국가, 사회 등 각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블루오션에서 시장 수요는 경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곳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블루오션’은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존재하는
과워풀한 시장이다. 장보고야말로 1200년전 해상경영의 ‘블루오션’ 전략을 실천한
선각자임에 틀림없다. 이제 다시 세계 유수의 해운국으로 뻗어나는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국제무역의 확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해상왕 장보고가 구상하고 실천한 해상무역활동의 핵심적 성공
요인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문경, 「청해진 장보고와 동아시아」, 향토문화진흥원, 1998.2
2. 김문경, 《장보고와 21세기》, 해안, 1999.
3. 김성훈외, 「21C 장보고 정신 구현」, 대산문화인쇄, 2003. 7
4. 민성규, 고대 동아시아의 해운활동과 장보고, 1997
5. 삼성경제연구소 「해상왕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평가 보고서」, 2003.11
6. 손보기 외, 《장보고 시대》, 신서원, 2001,
7. 손보기 『장보고와 청해진』 한국학술정보, 200
8. 신복룡, 《한국정치사》, 박영사, 2003.2.28
9.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연경문화사, 2002,
10. 엔닌/역주: 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2000.8
11. 이기동, 「장보고와 그 해상왕국」 「장보고 신연구」, 완도문화원, 1985.12, p.100.
12. 이기백, 「新羅 사병고」, 『신라 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pp.260~262.
13. 이영택, 「장보고 대사의 해양세력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 논문집」 제14집,
14. 이인철, 《신라 정치경제사 연구》, 일지사, 2003.05.20, pp.150-153.
15. 장보고연구회, 「대회문물 교류연구3」, 2004.2
16. 재단법인,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 2002,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17. 정찬식, "통일기 신라의 대당관계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1998
18. 최광식 외 『천년을 여는 미래인 -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2003
19. 최광식외, 《『천년을 여는 미래인 -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2003
20. 최근영민덕식, 「청해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성의 분석」, 『장보고의 신연구』, 완도문화원, 1985.
21. 최덕수외, 「장보고와 한국네트워크의 역사」, 2006.2
22. 최민자, 「세계인 장보고와 지구촌 경영」, 도서출판 범한, 2003.8

23. 한창수, 「천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삼성경제연구소, 2004,8
24. 해군사관학교, 「장보고 연구논총Ⅲ」 송화문화사, 2004.
25.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7~10세기 한·중·일 교역문헌 목록 자료집」, 2001.
26. 해양수산부 「해상왕장보고 제조명·평가사업 장기 기본계획」, 2000.7
27. 황상석,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 도서출판 혼눈, 1999.11.
28.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INDEX VOLUME 1 (1936) - Vol.
29. 『三國史記』 권10 閔哀王 卽位年(838) 12월조.
30. 『三國史記』 권10 憲德王 14년(822) 3월조.
31. 『三國史記』 권44 열전4 金陽傳.
32. 『三國史記』 권4 진흥왕 26년조.
33. 『續日本後紀』 권11 承和 9년(842) 정월 10일조

<신라, 백제, 고구려 해양사 목록>

- Jonathan W. Best, 1996, <Concerning the Date of the Paekche Bureaucratic Rank System>,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129~142쪽.
- 姜吉云, 1986,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의 비판 -비교언어학적 고찰->,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단제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607~634쪽.
- 岡内三眞, 1980, <百濟 武寧王陵と南朝墓の比較研究>, 《百濟研究》11, 충남대 백제연구소, 223~277쪽.
- 姜仁求, 1972, <百濟의 火葬墓 -새로운 百濟墓制->, 《考古美術》115, 한국미술사학회, 5~30쪽.
- 姜仁求, 1973, <百濟 甕棺墓의 一形式 -扶餘地方의 棺墓->, 《百濟文化》6,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01~121쪽.
- 姜仁求, 1974, <百濟의 火葬墓(續)>, 《美術資料》17, 국립중앙박물관, 1~22쪽.
- 姜仁求, 1975, <百濟의 火葬墓 3>,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73~80쪽.
- 姜仁求, 1979, <中國墓制가 武寧王陵에 미친 影響 -風水地理的 要素->, 《百濟研究》10, 충남대 백제연구소, 87~107쪽.
- 姜銓薰, 1992, <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 《韓國古代史論叢》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92~450쪽.
- 鎌田茂雄, 1984, <百濟佛敎의 日本傳來>, 《馬韓百濟文化》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61~71쪽.
- 高在奂, 1990, <제주도의 海洋俗談>, 《벽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126~1140쪽.
- 郭鍾喆, 1992, <한국과 일본의 고대 농업기술 - 김해지역과 북부 구주지역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기초작업 ->, 《한국고대사논총》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61~137쪽.
- 久野健, 1982, <百濟佛像의 服制와 그 源流>,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223~253쪽.
- 久野健, 1994, <百濟と中國南朝の像>, 《于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民族文化의 諸問題》, 145~167쪽.
- 權五曄, 1995, <“古事記”의 百濟-新羅說話>, 《百濟研究》25, 충남대 백제연구소, 5~47쪽.
-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東晋青磁의 流入經緯를 中心으로->, 《韓國史論》18, 서울대 국사학과, 3~28쪽.

- 權五榮, 1996, <中西部地方의 初期鐵器文化와 「衆國」의 대두>, 《釜山史學》31, 부산사학회, 1~18쪽.
- 權兌遠, 1972, <百濟服飾에 關한 考察>, 《百濟研究》3, 충남대 백제연구소, 157~174쪽.
- 權兌遠, 1977, <百濟의 社會風俗史 考察(一) -韓의 社會風俗을 中心으로->, 《百濟研究》8, 충남대 백제연구소, 63~93쪽.
- 權兌遠, 1978, <百濟의 社會風俗史 考察(二) -韓의 社會風俗을 中心으로->, 《百濟研究》9, 충남대 백제연구소, 111~159쪽.
- 權兌遠, 1988, <百濟의 木簡과 陶硯에 대하여>,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595~606쪽.
- 權兌遠, 1990, <百濟의 南遷과 中國文化의 影響>, 《백제연구》21, 충남대 백제연구소, 127~140쪽.
- 權兌遠, 1995, <중국동북지방과 백제문화계통 -松遼지방 묘제에 대하여->, 《한민족과 북방과의 관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72쪽.
- 權兌遠, 1996, <三韓三國系 문화전파와 고대 일본의 天皇家>, 《道山學報》5, 도산학술연구원, 165~197쪽.
- 鬼頭清明, 1996, <6世紀の百濟權力と佛教文化の受容>,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65~71쪽.
- 金起燮, 1997, <百濟의 遼西經略說 再檢討 -4세기를 중심으로->,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학연문화사, 319~338쪽.
- 金基雄, 1988, <日本古墳에 보이는 百濟的 要素 -潘南古墳과 관련하여->, 《羅州潘南古墳群》, 국립광주박물관, 218~224쪽.
- 金東鎬, 1986, <고고학상에서 본 소가야문화의 제문제>, 《嶺南考古學》1, 영남고고학회, 55~73쪽.
- 金杜珍, 1990, <馬韓社會의 構造와 性格>, 《마한·백제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77~98쪽.
- 金理那, 1992, <百濟彫刻과 日本彫刻>,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 박물관·충청남도, 129~170쪽.
- 金芳漢, 1980, <原始 韓半島語 -日本語와 관련해서->, 《韓國文化》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25쪽.
- 金思燁, 1989, <日本近畿南部地域의 韓文化>, 《日本學》8·9합,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65~284쪽.
- 金三龍, 1977, <百濟의 益山遷都和 그 文化의 性格>, 《馬韓·百濟文化》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9~23쪽.

- 金相鉉, 1999, <百濟 威德王의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殿觀音>, 《韓國古代史研究》15, 한국고대사학회, 47~75쪽.
-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16, 충남대 백제연구소, 5~18쪽.
- 金善昱, 1986, <隋書와 唐書의 百濟史料에 關한 檢討 -封建要因을 中心으로->,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67~72쪽.
- 金聖昊, 1991, <任那三韓三國論 研究>, 《최재석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한국의 사회와 역사》, 669~704쪽.
- 金壽泰, 1999, <後百濟 甄萱政權의 成立과 農民>, 《百濟研究》29, 충남대 백제연구소, 83~100쪽.
- 金妍秀, 1994, <傳 扶餘 發見 中國靑磁벼루에 대하여>, 《考古學誌》6, 한국고미술연구소, 97~107쪽.
- 金永培, 安承周, 1975, <扶餘 松竹里 遼寧式銅劍出土 石棺墓>,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7~30쪽.
-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한국사론》22, 서울대 국사학과, 61~130쪽.
- 金英愛, 1998, <삼국시대 불교조각이 일본 아스카(飛鳥) 불교조각에 미친 영향>, 《文化財》31, 문화재관리국, 61~86쪽.
- 金煥泰, 1979, <百濟의 觀音思想>, 《馬韓·百濟文化》3,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1~35쪽.
- 金煥泰, 1982, <善光寺緣起를 통해 본 百濟의 請觀音經信仰과 그 日本傳授 -百濟佛敎의 日本傳授考 1->, 《佛敎學報》1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1~47쪽.
- 金煥泰, 1983, <百濟 琳聖太子와 妙見信仰의 日本傳授>, 《佛敎學報》2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45~83쪽.
- 金煥泰, 1989, <百濟佛敎의 日本 初傳問題 -隋書倭國條의 所傳을 중심으로->, 《불교학보》2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1~36쪽.
- 金煥泰, 1990, <百濟의 對日本 文字佛經 初傳과 그 時期 -求得佛經 始有文字를 중심으로->,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 韓國哲學宗教思想史》, 295~312쪽.
- 金元龍, 1975, <百濟建國地로서의 漢江下流地域>,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1~38쪽.
- 金元龍, 1977, <益山地域의 靑銅器文化>, 《馬韓·百濟文化》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5~55쪽.
- 金恩淑, 1994, <6세기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신라문화선양회, 179~223쪽.

- 金在瑾, 1985, <張保阜 時代의 貿易船과 그 航路>, 《張保阜의 新研究 - 淸海鎮 活動을 中心으로 -》, 완도문화원, 120~151쪽.
- 金正基, 1979, <馬韓 領域에서 發見된 住居址>, 《馬韓·百濟文化》3,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5~10쪽.
- 金廷鶴, 1981, <扶餘와 奈良>, 《新東亞》 8월호, 동아일보사, 172~179쪽.
- 金廷鶴, 1986, <石上神宮所藏 七支刀의 眞僞에 對하여>,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73~78쪽.
- 金鍾萬, 1995, <忠南西海岸地方 百濟土器研究 - 保寧舒川地方을 中心으로 ->, 《百濟研究》25, 충남대 백제연구소, 49~87쪽.
- 金周成, 1997, <榮山江流域 大形甕棺墓 社會의 成長에 對한 試論>, 《百濟研究》27, 충남대 충남대 백제연구소, 27~41쪽.
- 金昌鎬, 1990, <百濟 七支刀 銘文의 재검토 - 日本學界의 任那日本府說에 對한 反論(3) ->, 《역사교육논문》13:14호 - 서연김영하교수정년퇴임 기념사학논총, 역사교육학회, 137~154쪽.
- 金泰植, 1992, <6세기 중엽 加耶의 멸망에 對한 研究>, 《韓國古代史論叢》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7~273쪽.
-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 交渉과 征服 ->, 《百濟研究論叢》5 -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 백제연구소, 43~84쪽.
- 金 賢, 1987, <百濟服飾에 關한 研究>, 《論文集》25 - 自研藝體能篇, 공주사대, 63~80쪽.
- 金鉉球, 1994, <4세기 가야와 백제·야마토와의 關係>, 《韓國古代史論叢》6,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11~141쪽.
- 金興坤, 1981, <高句麗墳墓와 百濟墳墓의 內部空間比例에 關한 比較研究>, 《湖西文化研究》1,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55~172쪽.
- 祁慶富, 1996, <高麗圖經의 遠洋船隊와 航海技術>, 《정신문화연구》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1~170쪽.
- 金基雄, 1986, <일본의 고분문화를 통하여 본 한국문화의 일본전파>, 《한국사론》16, 국사편찬위원회, 73~130쪽.
- 김문경, 1995, <7~9세기 신라인 해외무역 활동>, 《韓國服飾》13, 단국대 민속학연구소, 1~26쪽.
- 김선욱, 1984, <百濟의 隋唐關係小考 - 內外相關性을 中心으로 ->, 《百濟研究》15, 충남대 백제연구소, 111~124쪽.
- 김양주, 1994, <강과 바다, 그리고 신들의 결혼 - 일본 시만토강 유역사회의 '하치만상' 축제와 그 지역성에 關한 고찰 ->, 《민속학연구》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7~34쪽.

- 김영원, 1998,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百濟文化》2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53~80쪽.
- 김용욱, 1996, <백제의 위상과 대외 관계>, 《馬韓》創刊號, 마한향토사연구회, 31~40쪽.
- 김은숙, 1996,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日本學》15,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44~189쪽.
- 金在萬, 1983, <5代와 후삼국고려초기의 관계사>, 《대동문화연구》1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69~207쪽.
- 金貞培, 1987, <고고학상으로 본 한·중관계>, 《고대 한중관계사의 연구》, 삼지원, 80~92쪽.
- 金鍾完, 1989, <남북조시대의 책봉에 대한 검토 -賜與된 관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19, 서강대 동아연구소, 1~36쪽.
- 김홍남, 1991, <武寧王陵出土蓋의 중국도자사적 의의 -年代추정이 가능한 중국 最古의 白磁로서->,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충청남도·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53~174쪽.
- 羅幸柱, 1993, <古代 朝日關係에 있어서의 '質'의 意味 -특히 '質'의 倣造목적을 중심으로->, 《건대사학》8, 건국대 사학회, 295~352쪽.
- 南在祐, 1998, <加耶時代 昌原·馬山地域 政治集團의 對外關係>, 《昌原史學》4 -以峯朴東百博士停年紀念論叢-, 창원대 사학회, 45~71쪽.
- 南亨宗, 1993, <百濟東城王代 支配勢力의 動向과 王權의 安定>. 《北岳史論》3, 국민대 국사학과, 1~52쪽.
-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4, 서울대 국사학과, 3~130쪽.
-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연세대 국학연구원, 45~107쪽.
- 盧重國, 1981, <泗泚時代 百濟支配體制의 變遷>, 《韓洵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51~77쪽.
- 盧重國, 1985,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檐魯體制를 中心으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127~155쪽.
- 盧重國, 1986, <百濟律令에 대하여>,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55~66쪽.
- 盧重國, 1987, <馬韓의 成立과 變遷>,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3~48쪽.
- 盧重國, 1990,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백제논총》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65~90쪽.
-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集權力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충청남도·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9~30쪽.

- 盧重國, 1994, <7世紀 百濟와 倭와의 關係>, 《國史館論叢》52, 국사편찬위원회, 155~188쪽.
- 大木衛, 1992, <日本古代文化に貢獻した韓國文化の軌跡 -百濟の先進文化を導入した王仁博士とその周邊->, 《일본연구》3, 명지대 일본문제연구소, 205~232쪽.
- 大西修也, 1986, <彌勒菩薩半跏像の諸問題 -百濟半跏像を中心として->, 《日本學》5,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93~132쪽.
- 都守熙, 1979, <百濟地名研究>, 《百濟研究》10·11합, 충남대 백제연구소, 121~142쪽, 5~157쪽.
- 東 潮, 1990, <馬韓文化と鐵>, 《마한백제문화》12,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25~142쪽.
- 孟仁在, 1984, <百濟의 工藝 -裝飾金具의 草花文에 대하여->, 《馬韓·百濟文化》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3~206쪽.
- 孟仁在, 1985, <新羅와 百濟工藝 比較 小考>, 《馬韓·百濟文化》8,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3~25쪽.
- 武末純一, 1987, <彌生土器と無文土器·三韓土器 -併行關係を中心に->,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1 -考古學篇, 일지사, 842~857쪽.
- 武田幸男, 1986, <廣開土王碑の百濟と倭>,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179~187쪽.
- 武田幸男, 1990, <魏志東夷傳における馬韓 -辰王と臣智に關する一試論->, 《마한·백제 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7~48쪽.
- 文暎鉉, 1979, <王建太祖의 民族再統一의 研究>, 《慶北史學》1, 경북대 사학과, 53~114쪽.
- 文明大, 1981, <한국고대조각의 대외교섭에 대한 연구>, 《예술논문집》20, 예술원, 65~130쪽.
- 文安植, 1996, <嶺西藏文化圈의 設定과 歷史地理的 背景>, 《東國史學》30, 동국사학회, 47~84쪽.
- 문안식, 1996, <百濟의 對中國郡縣 一考察>, 《傳統文化研究》4, 조선대 전통문화연구소, 153~183쪽.
- 朴桂弘, 1973, <忠南 西海島嶼의 民俗研究 -一部落祭의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百濟研究》4, 충남대 백제연구소, 139~181쪽.
- 朴相珍, 1991, <百濟 武寧王陵 出土 棺材의 樹種>,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충청남도·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75~176쪽.
- 朴性鳳, 1985, <百濟文化的 性格 一考 -高句麗文化와 연관지어->, 《文山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원광대 출판국, 289~306쪽.

- 朴永福, 1984, <禮山 百濟四面石佛의 考察>, 《尹武炳博士 回甲紀念 論叢》, 323~358쪽.
- 朴玉杰, 1994, <古代의 對倭關係史 研究>, 《인문논총》5,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343~376쪽.
- 朴容填, 1973, <公州出土의 百濟 瓦塼에 關한 研究>, 《百濟文化》6,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45~99쪽.
- 朴容填, 1985, <扶餘 窺岩出土 百濟 方形 무늬벽돌>, 《文山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 와 圓佛敎思想》, 원광대 출판국, 195~205쪽.
- 박윤선, 1996, <渡日 百濟遺民의 活動>, 《淑明韓國史論》2,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87~135쪽.
- 朴燦圭, 1992, <百濟의 漢江流域 定着과 發展>, 《학술논총》15, 단국대 대학원, 459~482쪽.
- 朴燦圭, 1995, <百濟前期 經濟的 成長과 統治體制의 發達>, 《史學志》28, 단국대 사학회, 39~65쪽.
- 朴燦圭, 1997, <日本 宮崎縣 南郷村 神門神社의 百濟王傳說과 緋緞墨書>, 《高句麗研究》3, 고구려연구회, 205~230쪽.
- 朴漢高, 1989, <나말려초의 서해안교섭사 연구>, 《국사관논총》7, 국사편찬위원회, 35~64쪽.
- 方東仁, 1985, <淸海鎮의 戰略上 位置>, 《張保阜의 新研究 -淸海鎮 活動을 中心으로>, 완도문화원, 154~175쪽.
- 方善柱, 1973, <濊百濟關係 虎符에 대하여>, 《史叢》17·18합, 고려대학교 사학회, 35~54쪽.
- 芳賀登, 1987, <古代日本における百濟の位置>,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125~152쪽.
- 방학봉, 1998, <延邊地區의 渤海遺蹟과 日本道>, 《白山學報》50特輯號, 백산학회, 33~60쪽.
- 白承玉, 1992, <新羅·百濟 各축기의 比斯伐伽倻>, 《부대사학》15·16합, 부산대 사학회, 293~318쪽.
- 白承忠, 1995,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19, 부산대 사학회, 53~82쪽.
- 백승충, 1998, <문헌에서 본 가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1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29~339쪽.
- 백종오, 1998, <경기남부지역의 백제산성 I -安城川·牙山灣一帶를 중심으로->, 《京畿道博物館 年報》2, 경기도박물관, 21~66쪽.
- 卞麟錫, 1986, <七世紀中葉 白江口戰의 研究史的 檢討>, 《부산사총》2, 부산산업대 사학회, 1~24쪽.

- 卞麟錫, 1994, <七世紀 中葉 白江口戰에 참가한 日本軍의 성격에 대하여 -도래인 水軍의 歸巢性格 行위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52, 국사편찬위원회, 189~200쪽.
- 史在東, 1974, <「武康王傳說」의 研究>, 《百濟研究》5, 충남대 백제연구소, 87~114쪽.
- 山尾幸久, 1992, <7世紀 中葉의 東아시아>, 《백제연구》23, 충남대 백제연구소, 171~202쪽.
- 上田正昭, 1989, <百濟國의 大刀契>, 《日本學》8·9합,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10쪽.
- 上田正昭, 1990, <百濟와 飛鳥文化>, 《백제연구》21, 충남대 백제연구소, 117~126쪽.
- 西谷正, 1990, <吉野ヶ里遺跡と韓國>, 《마한·백제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05~112쪽.
- 徐炳國, 1981, <渤海와 新羅의 國境線 研究 -東海岸 地域을 中心으로->, 《關東大 論文集》9, 관동대, 431~464쪽.
- 徐聲勳, 1980, <百濟器臺의 研究>, 《百濟研究》11, 충남대 백제연구소, 193~222쪽.
-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에 대한 研究>, 《百濟文化》15,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5~113쪽.
- 成洛俊, 1989, <榮山江流域 甕棺古墳 出土土器에 대한 一考察 -특히 羅州 潘南과 靈岩 始終古墳群을 中心으로->, 《전남문화재》1, 전라남도, 53~76쪽.
- 成洛俊, 1996,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文化的 性格>,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147~162쪽.
- 成周鐸, 1979, <武寧王陵出土 「童子像」에 對하여>, 《百濟研究》10, 충남대 백제연구소, 109~119쪽.
- 成周鐸, 1987, <馬韓·初期百濟史에 對한 歷史地理的 管見>,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53~166쪽.
- 小玉大圓, 1984, <中央アジアと百濟의 文化>, 《馬韓·百濟文化》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85~105쪽.
- 小玉大圓, 1985, <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 上>, 《馬韓·百濟文化》8,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7~53쪽.
- 小玉大圓, 1987, <百濟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下)>,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67~200쪽.
- 小玉大圓, 1990, <朝鮮·中國間의 古代의 海路 -序說->, 《여산류병덕화갑기념 한국철학종교사상사》, 487~498쪽.
- 小玉大圓, 1994, <百濟求法僧謙益とその周邊>, 《韓國思想史學》6, 한국사상사학회, 371~448쪽.
- 小田富士雄, 1977, <西日本 發見의 百濟系 土器>, 《百濟文化》10,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1~46쪽.

- 小田富士雄, 1982, <越州窯青磁를 伴出한 忠南의 百濟土器 -4世紀의 百濟土器 其二->,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13쪽.
- 小田富士雄, 1984, <百濟古墳の系譜 -特に中國日本との關係について->, 《馬韓百濟文化》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3~158쪽.
- 小田富士雄, 1985, <日韓火葬墓の出現 -扶餘と九州->, 《百濟研究》16, 충남대 백제연구소, 161~187쪽.
- 蘇鎮轍, 1991, <日本國 國寶 '隅田八幡神社 所藏 人物畫 像鏡'의 銘文을 보고 -서기 503년 8월 10일 百濟 武寧王(斯麻)은 '大王年'대를 쓰고 繼體天皇을 '男弟王'이라 부른다->, 《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629~648쪽.
- 소진철, 1998, <『梁職貢圖』로 본 百濟 武寧王의 疆土>, 《韓國學報》90, 일지사, 93~110쪽.
- 宋基豪, 1989, <발해멸망기의 대외관계 -거란후삼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17, 서울대 국사학과, 47~97쪽.
- 宋祥圭, 1976, <王宮坪 城에 對한 研究 -金馬의 百濟末期 王都可能性의 諸問題->, 《百濟研究》7, 충남대 백제연구소, 93~130쪽.
- 宋亨燮, 1994, <百濟와 日本의 文化교류>, 《百濟의 宗教와 思想》, 충청남도, 375~396쪽.
- 柴田恵司, 1995, <古代日本の船とその周邊>, 《日本學》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53~193쪽.
- 辛鍾遠, 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敎와 韓日關係 -新羅 法興王·眞興王代佛敎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59, 한국사학회, 1~26쪽.
- 申滢植, 1983,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 漢江流域의 政治軍事的 性格>, 《鄉土서울》4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45~72쪽.
- 申滢植, 1989, <한국고대의 서해교섭사>, 《국사관논총》2, 국사편찬위원회, 1~40쪽.
- 申滢植, 1992, <中國文獻에 나타난 百濟社會>,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5~14쪽.
- 安啓賢, 1978, <百濟佛敎에 關한 諸問題>, 《百濟研究》8, 충남대 백제연구소, 33~43쪽.
- 安承周, 1973, <百濟 墳墓의 構造>, 《百濟文化》6,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55~165쪽.
- 安承周, 1975, <百濟古墳의 研究>,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81~175쪽.
- 安承周, 1977, <保寧·九龍里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百濟文化》10,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7~30쪽.
- 安承周, 1983, <百濟 甕棺墓에 對한 研究>, 《百濟文化》15,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33쪽.

- 安承周, 1986, <百濟石室墳과 그 墓制의 日本傳播에 관한 研究>,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91~96쪽.
- 安在皓·洪潛植,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연구 -竝行關係를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1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43~228쪽.
- 梁起錫, 1980, <熊津時代의 百濟支配層研究 -王權強化政策과 關聯하여->, 《史學志》14, 단국대 사학회, 1~35쪽.
-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의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10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호서사학회, 11~27쪽.
-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對하여>, 《史學研究》38, 한국사학회, 49~79쪽.
- 梁起錫, 1987, <百濟의 稅制>, 《百濟研究》18, 충남대 백제연구소, 5~16쪽.
- 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신라 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신라문화선양회, 75~95쪽.
- 梁起錫, 1997, <百濟 近仇首王의 對外活動과 政治的 地位 -高句麗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百濟論叢》6, 백제문화개발연구원, 39~62쪽.
- 梁起錫, 1997, <百濟 扶餘隆 墓誌銘의 '百濟 辰朝人'>, 《金顯吉教授定年紀念鄉土史學論叢》, 33~40쪽.
- 延敏洙, 1990, <6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所謂 任那日本府說 究明을 위한 序章->, 《新羅文化》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05~143쪽.
- 延敏洙, 1990, <6世紀前半 伽倻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소위 「那日本府」說의 究明을 위한 序章->, 《신라문화》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05~144쪽.
- 延敏洙, 1994, <5世紀後半 百濟와 倭國 -昆支의 行적과 東城王의 卽位事情을 중심으로->, 《日本學》13,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83~315쪽.
- 延敏洙, 1997, <改新政權의 성립과 동아시아 外交 -乙巳의 정변에서 白村江전투까지->, 《日本歷史研究》6, 일본역사연구회, 27~48쪽.
- 延敏洙, 1997, <金官國의 멸망과 동아시아>, 《伽倻文化》10, 가야문화연구원, 131~181쪽.
- 延敏洙, 1997, <百濟의 對倭外交와 王族 -百濟 外交史의 一特質->, 《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195~216쪽.
- 延敏洙, 1997, <百濟의 對倭外交와 王族 -百濟 外交史의 特質->, 《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195~216쪽.
- 오카우찌 미즈자에, 1991, <그 후의 武寧王陵과 南朝墓>,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충청남도·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61~78쪽.

- 吳隆京, 1975, <彌勒寺址의 綠釉瓦當에 대한 考察>, 《馬韓·百濟文化》創刊號,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43~158쪽.
- 吳洪哲, 1984,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濟州島研究》1, 제주도연구회, 97~117쪽.
- 柳南相, 1972, <百濟精神의 歷史的 考察>, 《百濟研究》3, 충남대 백제연구소, 111~123쪽.
- 柳南相, 1982, <百濟思想의 研究>,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88~102쪽.
- 劉鳳榮, 1976, <한·중간의 고대육상교통>, 《백산학보》20, 백산학회, 267~277쪽.
- 俞元載, 1986, <熊津都城의 防備體制에 對하여 -周邊의 山城分布를 中心으로->, 《忠南史學》1, 충남대 사학회, 49~76쪽.
- 俞元載, 1988, <泗泚都城의 防備體制에 對하여 -周邊의 山城配置를 中心으로->, 《公州師大論叢》24, 공주사대, 71~89쪽.
- 俞元載, 1990, <中國正史 「濟傳」 研究>, 《한국상고사학보》4, 한국상고사학회, 149~278쪽.
- 俞元載, 1992, <魏虜의 百濟侵入 記事>, 《백제연구》23, 충남대 백제연구소, 81~100쪽.
- 俞元載, 1992, <中國正史의 百濟觀>, 《한국고대사연구》6, 한국고대사연구회, 181~204쪽.
- 俞元載, 1997, <百濟의 馬韓 征服과 支配方法>, 《百濟論叢》6,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3~38쪽.
- 柳 哲, 1996,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百濟 南進 前後時期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3, 호남고고학회, 29~74쪽.
- 尹龍九,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漢代 樂浪郡의 교역형태와 관련하여->, 《歷史學報》162, 역사학회, 1~21쪽.
- 尹明喆, 1995,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 韓日 關係史의 理解>, 《日本學》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67~113쪽.
- 尹明喆, 1996, <고대 東아시아의 역사상에 있어서 해양의 문제 -고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연구논집》2 -역사와 문화-,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89~121쪽.
- 尹明喆, 1998, <西海岸一帶의 海洋歷史의 環境에 對한 檢討>,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開館五周年紀念 學術심포지움論文集-》, 국립전주박물관, 103~132쪽.
- 尹明喆, 1998, <黃海文化圈의 形成과 海洋活動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11 -安承周教授追慕特輯號-, 한국고대학회, 137~162쪽.
- 尹明喆, 1999, <渤海의 海洋活動과 東아시아의 秩序 再編>, 《高句麗研究》6 -발해건국 1300주년(698~1998)-, 고구려연구회, 467~514쪽.
- 尹武炳, 1974, <武寧王陵 및 宋山里 6號墳의 塼築構造에 對한 考察>, 《百濟研究》5, 충남대 백제연구소, 155~185쪽.

- 尹武炳, 1976, <金堤 碧骨堤 發掘報告>, 《百濟研究》7, 충남대 백제연구소, 67~91쪽.
- 尹武炳, 1978, <武寧王陵 石獸의 研究>, 《百濟研究》9, 충남대 백제연구소, 21~40쪽.
- 尹武炳, 1984, <漢江流域에 있어서의 百濟文化研究>, 《百濟研究》15, 충남대 백제연구소, 5~10쪽.
- 尹世英, 1991, <武寧王陵出土 冠飾에 關하여 -團扇說에 對한 反論->,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충청남도·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31~152쪽.
-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關한 一考察>, 《史叢》45, 고려대 사학회, 27~65쪽.
- 李康來, 1985,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研究》2, 고려대 영토문제연구소, 31~68쪽.
- 李光奎, 1990, <馬韓社會의 人類學的 考察>, 《마한·백제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63~76쪽.
- 李根雨, 1990, <百濟本記와 任那問題>, 《가라문화》8,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61~94쪽.
- 李根雨, 1997,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43~65쪽.
-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62, 19~34쪽.
- 李基東, 1982,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18~32쪽.
- 李基東, 1986,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百濟關係記事의 檢討>, 《百濟研究》17, 충남대 백제연구소, 43~53쪽.
- 李基東, 1987,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마한·백제문화》10,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49~68쪽.
- 李基東, 1990, <馬韓史 序章 -西海岸航路와 馬韓社會의 黎明>, 《마한·백제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99~104쪽.
-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 併合>, 《백제논총》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49~64쪽.
-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 -특히 '周禮'主義의 정치이념과 關한 하여->,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16쪽.
- 李基東, 1992, <騎馬民族說에서의 韓·倭연합왕국론 비판>, 《한국사시민강좌》11, 일조각, 71~93쪽.
- 李基東, 1992, <薛仲業과 淡海三船의 交歡 - 統一期 新羅와 日本과의 文化적 교섭의 斷面 ->, 《역사학보》134·135합집, 역사학회, 305~318쪽.

- 李基東, 1996, <百濟社會의 地域共同體와 國家權力 -在地勢力 編制의 한 側面->,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185~194쪽.
- 李基東, 1997, <고대의 역사인식>,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史研究》, 27~38쪽.
- 李基東, 1997, <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 《歷史學報》155, 역사학회, 1~24쪽.
- 李基白, 1978,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9, 충남대 백제연구소, 9~20쪽.
- 李基白, 1982, <熊津時代의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33~44쪽.
- 李南奭, 1987, <忠南 西海岸 고인돌 2例>, 《百濟文化》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51~70쪽.
- 李道學, 1990, <百濟 七支刀銘文의 再解釋>, 《한국학보》60, 일지사, 65~82쪽.
- 李道學, 1991, <百濟 黑齒常之墓誌銘의 檢討>, 《향토문화》6, 향토문화연구회, 19~37쪽.
-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한국학보》63, 일지사, 67~105쪽.
- 李道學, 1992, <伯濟國의 성장과 소금 交易網의 확보>, 《백제연구》23, 충남대 백제연구소, 5~20쪽.
- 伊藤秋男, 1974, <武寧王陵發見の金製耳飾について>, 《百濟研究》5,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213쪽.
- 伊藤秋男, 1979, <公州 宋山里古墳 出土의 馬具>, 《百濟文化》12,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55~74쪽.
- 李蘭英, 1998, <百濟 지역 출토 中國陶瓷 研究 -古代의 交易陶瓷를 중심으로->, 《百濟研究》28, 충남대 백제연구소, 213~244쪽.
- 李明揆, 1983, <백제 대외관계에 관한 일시론 -「大陸進出說」 考察을 위한 하나의 假說로서->, 《史學研究》37, 한국사학회, 73~110쪽.
- 李文基, 1998, <泗泚時代 百濟의 軍事組織과 그 運用>, 《百濟研究》28, 충남대 백제연구원, 269~305쪽.
- 李玟洙, 1980, <百濟의 遼西經略에 關한 考察>, 《韓社大學 論文集》10, 한사대학, 101~108쪽.
- 李丙燾, 1974, <百濟七支刀考>, 《震檀學報》38, 진단학회, 5~15쪽.
- 李尙律, 1998, <新羅, 伽倻 文化圈에서 본 百濟의 馬具>, 《百濟文化》2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9~239쪽.
- 李永植, 1995, <六世紀 安羅國史 研究>, 《國史館論叢》62, 국사편찬위원회, 95~133쪽.

-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83~237쪽.
- 李銀圭, 1973, <古代日本の 支配層과 三韓三國>, 《新東亞》 1973年 1月號, 동아일보사, 84~95쪽.
- 李殷晟, 1984, <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 《東方學志》43, 연세대 국학연구원, 39~41쪽.
- 李殷昌, 1986, <후지노끼 고분 -한일 고분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1, 영남고고학회, 75~128쪽.
- 李殷昌, 1989, <후지노끼 고분의 문화사적인 연구 -한일간의 신앙·사상교류사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화랑문화의 재조명》, 신라문화선양회, 293~324쪽.
- 李載浩, 1995, <廣開土王 陵碑文의 析疑 -특히 辛卯年 倭來渡 記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88, 한국사연구회, 161~174쪽.
- 李鍾玟, 1997, <百濟時代 輸入陶磁의 影響과 陶磁史의 意義>, 《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165~194쪽.
- 李鍾旭, 1977, <百濟王國의 成長 -統治體制的 強化와 專制王權의 成立->, 《大丘史學》 12·13합, 대구사학회, 55~86쪽.
- 李鍾哲·皇甫明, 1994, <百濟의 衣食住生活 習俗>, 《裴鍾茂總長退任紀念 史學論叢》, 93~107쪽.
- 李進熙, 1982, <古代韓日關係史 研究와 武寧王陵>,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58~75쪽.
-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1, 한국고대사연구회, 157~179쪽.
- 李賢惠, 1990, <三韓社會의 농업생산과 철제농기구>, 《역사학보》126, 역사학회, 45~70쪽.
-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 古代篇·高麗時代篇, 35~57쪽.
-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研究論叢》5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 백제연구소, 7~32쪽.
- 李亨求, 1989, <고대 조선과 琉球와의 문화교류>, 《두산김택규박사회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521~539쪽.
- 李昊榮, 1990, <삼국시대의 財政>, 《국사관논총》13, 국사편찬위원회, 91~128쪽.
- 이희진, 1994, <4세기 중엽 百濟의 '加耶征伐'>, 《韓國史研究》86, 한국사연구회, 1~27쪽.
- 李熙眞, 1994, <加耶의 消滅過程을 통해 본 加耶-百濟-新羅關係>, 《歷史學報》141, 역사학회, 21~56쪽.
- 李熙眞, 1996, <百濟勢力의 加耶進出과 加耶의 對應>, 《軍史》33, 국방군사연구소, 35~61쪽.
- 林均澤, 1994, <百濟의 思想의 淵源의 考察>, 《百濟의 宗教와 思想》, 충청남도, 21~39쪽.

- 林永珍, 1992, <榮山江流域 百濟時代 墓制의 變遷 背景>, 《고문화》40·41합,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47~50쪽.
- 林永珍, 1997, <全南地域 石室封土墳의 百濟系統論 再考>, 《湖南考古學報》6, 호남고고학회, 123~151쪽.
- 張榮芳, 1990, <唐代 史書의 百濟에 對한 記錄과 認識>, 《백제연구》21, 충남대 백제연구소, 55~72쪽.
- 張寅成, 1994, <백제의 術數>, 《百濟研究》24, 충남대 백제연구소, 135~146쪽.
- 張忠植, 1989, <日本近畿地方의 佛敎美術>, 《日本學》8·9합,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305~322쪽.
- 全德在,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16~50쪽.
- 全德在, 1999, <백제 농업기술 연구>, 《韓國古代史研究》15, 한국고대사학회, 77~123쪽.
- 全榮來, 1975, <完山과 比斯伐論>, 《馬韓·百濟文化》創刊號,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23~254쪽.
- 全榮來, 1982,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 -周留城·白江의 軍事地理學的 考察->, 《軍史》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23~35쪽.
-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35~162쪽.
- 全榮來, 1998, <百濟의 興起와 帶方故地>, 《百濟研究》28,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원, 35~48쪽.
- 畑井弘, 1989, <繼體紀の二·三の問題>, 《日本學》8·9합,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67~74쪽.
- 田中俊明, 1997, <熊津時代 百濟의 領域再編과 王·侯制 -榮山江流域의 百濟領域化問題와 關聯하여->, 《百濟研究論叢》5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 백제연구소, 253~275쪽.
- 田村圓澄, 1977, <百濟佛敎傳來考>, 《白初 洪淳昶博士 還曆紀念 史學論叢》(2), 형설출판사, 103~120쪽.
- 田村圓澄, 1982, <百濟의 彌勒信仰>, 《馬韓·百濟文化》4·5합,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37쪽.
- 田村圓澄, 1994, <百濟佛敎의 日本傳播>, 《百濟의 宗教와 思想》, 충청남도, 210~223쪽.
- 鄭明鎬, 1975, <百濟時代의 石燈 -彌勒寺址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創刊號,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13~142쪽.
- 井上秀雄, 1982, <百濟貴族에 대하여>, 《百濟研究》특집호, 충남대 백제연구소, 45~57쪽.
- 井上秀雄, 1985, <古代日本人의 百濟觀>, 《文山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원광대 출판국, 445~465쪽.
- 정성일, 1998, <일본에 漂着한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異國 체험(1627~1888) -지역간 국제협력의 모색을 위하여->, 《전남지역 경제조사》63, 광주시·전라남도·광주은행, 9~23쪽.
- 鄭永鎬, 1972, <百濟 助川城考>, 《百濟研究》3, 충남대 백제연구소, 73~92쪽.
- 鄭永鎬, 1984, <對馬島發見 百濟金銅半跏像>, 《百濟研究》15, 충남대 백제연구소, 125~132쪽.

- 鄭永鎬, 1985, <日本 觀松院所藏 百濟 金銅半跏像 -百濟 金銅佛渡日의 一例->, 《文山 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教思想》, 원광대 출판국, 173~194쪽.
- 鄭永鎬, 1988, <日本 松田 光氏所藏 金銅半跏思惟像 -百濟 金銅半跏思惟像 渡日의 一例->,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127~148쪽.
- 鄭永鎬, 1998, <百濟佛像의 原流試論>, 《史學研究》55·56합 -竹田申載洪博士停年退任 紀念論文集-, 한국사학회, 23~31쪽.
- 丁仲煥, 1972, <日本書紀에 나타난 百濟三書에 대하여>, 《亞細亞學報》10, 아세아학술 연구회, 1~40쪽.
- 鄭鎮述, 1991,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研究>, 《조성도교수화갑기념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425~514쪽.
- 鄭鎮述, 1995, <三國時代 舟形土器船의 航海術>, 《日本學》14,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8~66쪽.
- 鄭孝雲, 1993,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白江口戰後의 對外關係를 中心으로->, 《한국상고사학보》14, 한국상고사학회, 217~238쪽.
- 鄭孝雲, 1997,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217~233쪽.
- 趙由典·金聖範, 1993, <莞島 淸海鎮 遺蹟에 관한 一考- 發掘進行遺構를 中心으로->, 《張保臯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이진, 209~236쪽.
- 趙鍾業, 1994, <百濟의 儒敎思想과 漢文學>, 《百濟의 宗教와 思想》, 충청남도, 182~192쪽.
- 中井眞孝, 1984, <七世紀の日韓佛敎交涉>, 《馬韓·百濟文化》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 연구소, 107~114쪽.
- 池健吉, 1977, <忠南海岸地方의 百濟古墳 二例와 出土遺物>, 《百濟文化》10,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7~16쪽.
- 池憲英, 1972, <「豆良尹城」에 대하여>, 《百濟研究》第3輯, 충남대 백제연구소, 11~46쪽.
- 秦弘燮, 1973, <百濟新羅의 冠帽·冠飾에 관한 二三의 問題>, 《史學志》7, 단국대 사학회, 1~34쪽.
- 秦弘燮, 1975, <百濟美術文化와 新羅·高句麗美術文化와의 比較>,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9~46쪽.
- 秦弘燮, 1985, <東北亞細亞에 있어서 百濟文化>, 《馬韓·百濟文化》8,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5~13쪽.
- 車勇杰, 1978, <百濟의 祭天祀地와 政治體制의 變化>, 《韓國學報》11, 일지사, 51~76쪽.

- 千寬宇, 1975, <三韓의 成立過程-「三韓攷」 第1部->, 《史學研究》26, 한국사학회, 1~66쪽.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三韓攷」 第3部->, 《韓國學報》2, 일지사, 2~46쪽.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三韓政」第3部->, 《韓國學報》3, 일지사, 112~156쪽.
- 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24, 한국사연구회, 13~30쪽.
- 崔光南, 1989, <新安 古代船의 航路와 造船術>, 《전남문화재》1, 전라남도, 107~124쪽.
- 崔光植, 1998, <百濟의 國家祭祀와 竹幕洞 祭祀遺蹟의 性格>,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開館五周年紀念 學術심포지움論文集-》, 국립전주박물관, 133~184쪽.
- 최근식, 1996, <“道里記” 「登州海行道」의 검토와 장보고 交關船의 항로>, 《史叢》49, 고려대 사학회, 1~23쪽.
- 崔根泳, 1988, <8~10世紀 地方勢力 形成의 諸要因 -韓國古代 三國人の 「國系」意識을 中心으로->,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75~124쪽.
- 崔夢龍, 1973, <榮山江 流域의 先史 遺蹟遺物 -榮山江 流域의 考古學的 調查研究(2)->, 《歷史學報》59, 67~87쪽.
- 崔夢龍, 1984, <榮山江 流域의 百濟文化研究>, 《百濟研究》15, 충남대 백제연구소, 21~29쪽.
- 崔夢龍, 1989, <상고사의 서해교섭사 연구>, 《국사관논총》3, 국사편찬위원회, 1~28쪽.
- 崔夢龍, 1990, <馬韓-目支國 研究의 諸問題>, 《백제논총》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67~280쪽.
- 崔夢龍, 金庚澤, 1990, <全南地方의 馬韓百濟時代의 住居址 研究>, 《한국상고사학보》4, 한국상고사학회, 1~92쪽.
- 崔夢龍, 李清圭·盧赫眞, 1979, <羅州潘南面 大安里 5號 百濟石室墳 發掘調査報告>, 《문화재》12, 문화재관리국, 90~104쪽.
- 崔盛洛, 1990, <全南地方의 馬韓文化>, 《마한백제문화》12,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43~156쪽.
- 崔完奎, 1986, <全北地方의 百濟土器에 대하여>, 《考古美術》169·170합, 한국미술사학회, 88~107쪽.
- 崔完奎, 1990, <全北地方 錦江河口의 百濟石室墳>,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49~108쪽.
- 崔應天, 1992, <百濟 金屬工藝의 樣相과 特性>,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 박물관·충청남도, 253~277쪽.

- 崔在錫, 1988, <日本古代天皇原籍考 -原住民인가, 扶餘族인가, 또는 百濟人인가->, 《韓國學報》51, 일지사, 2~31쪽.
- 崔在錫, 1989, <百濟의 大和倭와 高句麗·新羅와의 關係>, 《한국학보》57, 일지사, 2~42쪽.
- 崔在錫, 1989, <日本古代國家研究 -百濟와 大和倭와의 關係->, 《한국학보》55, 일지사, 153~199쪽.
- 崔在錫, 1990, <百濟의 大和倭의 「日本」으로의 變身過程>, 《동방학지》69, 연세대 국학연구원, 31~134쪽.
- 崔在錫, 1990, <百濟의 大和倭의 形成과 發展 -日本古代國家의 成立과 發展->, 《동방학지》65, 연세대 국학연구원, 1~52쪽.
- 崔在錫, 1993, <百濟와 肥後倭와의 關係 -「日本書記」를 中心으로->, 《일본학》12,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61~76쪽.
- 崔在錫, 1993, <任那의 위치·강역과 인접 5國과의 關係>, 《아세아연구》36-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46쪽.
- 崔在錫, 1995, <「國家珍寶帳」의 百濟製 赤漆느티나무櫥에 대하여>, 《百濟研究》25, 충남대 백제연구소, 217~223쪽.
- 崔在錫, 1996, <6세기 百濟 威德王의 對 大和倭 불교정책과 法興寺(飛鳥寺)조영>, 《정신문화연구》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9~133쪽.
- 崔在錫, 1996, <法隆寺 創建과 百濟>, 《博物館誌》2, 강원대 박물관, 43~48쪽.
- 崔鍾圭, 1992, <濟羅耶의 文物交流>, 《백제연구》23, 충남대 백제연구소, 65~80쪽.
- 崔孝軾, 1987, <百濟의 滅亡과 復興運動>,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동국대 신라 문화연구소, 325~350쪽.
- 萩原俊彦, 1973, <王仁과 百濟王氏>, 《日本問題》 1973年 夏季號, 일본문제연구소, 160~165쪽.
- 沈正輔, 1987, <百濟故地 帶方州考>, 《百濟研究》18, 충남대 백제연구소, 17~32쪽.
- 沈正輔, 1995, <百濟와 倭國과의 初期交涉記事 檢討>, 《韓國上古史學報》19, 한국 상고사학회, 371~382쪽.
- 河孝吉, 1998, <韓國 西海岸一帶의 海洋信仰>,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開館五周年紀念 學術심포지움論文集-》, 국립전주박물관, 87~102쪽.
- 韓昇, 1996, <南北朝與百濟政治·文化關係의 演變>,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231~247쪽.
- 韓容根, 1989, <三國時代의 刑律研究>,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39~170쪽.

- 玄容駿, 1972, <古代 韓國民族의 海洋他界>, 《文化人類學》5, 한국문화인류학회, 49~67쪽.
- 현용준, 1988, <신라인의 타계관>, 《민족과 문화》1, 한국문화인류학회논문집, 정음사, 433~459쪽.
- 玄容駿, 1993, <濟州道 神話와 儀禮形式에서 본 文化의 系統>, 《탐라문화》1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5~216쪽.
- 洪潛植, 1998, <百濟와 加耶의 교섭>, 《百濟文化》2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41~269쪽.
- 洪斌基·李揆山, 1983, <新基里百濟穹窿狀石室墳의 一例>, 《百濟文化》15,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15~127쪽.
- 洪思俊, 1972, <文獻에 나타난 百濟産業 -黃漆·人蔘·苧에 對하여->, 《百濟研究》3, 충남대 백제연구소, 47~53쪽.
- 洪思俊, 1972, <문헌에 나타난 백제산업 -황칠·인삼·苧에 대해서->, 《백제연구》3, 충남대 백제연구소, 47~53쪽.
- 洪思俊, 1975, <百濟國의 書畫人考>,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55~59쪽.
- 洪思俊, 1978, <삼국시대의 灌溉用 池에 대하여 -벽골제(김제)와 벽골지(당진군)->, 《고고미술》136·137합, 한국미술사학회, 5~137쪽.
- 洪思俊, 1979, <百濟人의 文化活動 一考 -日本書紀를 中心으로->, 《百濟文化》12,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89~107쪽.
- 洪潤植, 1975, <百濟佛敎>, 《崇山 朴吉眞博士 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75~88쪽.
- 洪潤植, 1991, <古代日本佛敎에서의 三國佛敎의 역할>, 《국사관논총》24, 국사편찬위원회, 67~96쪽.
- 黃寬重, 1996, <外交關係與社會變遷 -百濟對中國文化的受容의 初步觀察->, 《百濟研究》26, 충남대 백제연구소, 75~88쪽.
- 黃壽永, 1975, <百濟의 佛像彫刻>, 《百濟文化》7·8합 -百濟熊津遷都 1500周年紀念論叢-,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47~53쪽.
- 김기섭, 1997, <百濟 漢城時代 統治體制 연구 - 近肖古王代를 中心으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236쪽.
- 김영심,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연구 - 5~7세기를 中心으로 ->,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259쪽.
- 김현숙, 1999,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고찰>,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43쪽.

- 문안식, 1996, <백제 연맹왕국 형성기의 대중국군현관계 연구 - 韓·魏간의 무력충돌을 중심으로 ->,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85쪽.
- 박윤선, 1995, <渡日 百濟遺民의 활동>,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65쪽.
- 박찬규, 1995, <百濟의 馬韓征服過程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169쪽.
- 박현숙,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202쪽.
- 방영규, 1997, <4-5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연구 - 아신·전지왕대의 군사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73쪽.
- 서성호, 1997,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172쪽.
- 양기석, 1990, <百濟 專制王權 成立過程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189쪽.
- 유향숙, 1982, <백제 불상의 조형성고찰 - 중국불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 이도학, 1991, <百濟 集權國家形成過程 研究>,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 215쪽.
- 이명규, 1981, <백제의 중국 대륙에서의 상업적, 군사적 활동배경과 성격>,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89쪽.
- 임윤자, 1996, <5세기 후반의 倭와 百濟의 관계 - 백제계 渡來人과 倭 武王의 上表文을 중심으로 ->,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 54쪽.
- 정진수, 1991,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117쪽.
- 주성지, 1996, <백제의 웅진천도와 대외정책>,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76쪽.
- 진삼범, 1994, <4~5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와 담로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75쪽.
- 최원용, 1995, <백제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89쪽.
- 최인표, 1989, <百濟의 南北朝 交渉에 대한 一考察>,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 91쪽.
- 허 일, 2000, <8~9세기 우리 나라 서해 및 인접해역의 항로와 선형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163쪽.

An inquiry into the Marine Trade Activities of Chang
Pogo and the Historical Evaluations of His
Achievements

Jung, Chang-Won

Department of Maritim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Maritime Commerce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n the era of the United Silla Chang Pogo set up Cheong-Hae-Jin which was a kind of special Military and Administrative Base in the very important place for marine route and beat the pirates to lead the marine trade activities. The Wando, the last island of southern sea, is believed to be the place of Cheong-Hae-Jin which was the center of Korea, China and Japan seas in thousand years ago.

This means that he established a global network which dominated not only triangular trad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he trad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reas within China, as well as

merchants from Persia and Southeast Asia.

As the 21st century is featured as "new-maritime era", commercial sea power has been a critical factor in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a country. In this regard, many intellectuals in Korea has reevaluat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hang Pogo's marine trade activities to take out some implications for today.

His achievements presented a new model of trade and business for various fields and could be supposed to be conducive to Korea's being trading hub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he can be marked as a pioneer who saw through the importance of advancing to the ocean and took a leading role in shifting tribute trade(public trade) to private trade. He was a person who proved the old saying, "he who controls the sea, shall control the world itself" to be true.

After all, the implications of his achievements could be found in that his pioneering spirit,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sea power and openness are surprisingly coincided with the key words of the 21st century of globalizing era.

감사의 글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등 사업추진의 초석을 마련하시다 1999년 12월 15일 순직(殉職)하신 “장보고기획단장” 고(故) 신길웅(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선배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가 위로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장보고기획단 1기” 이장훈 국장님, 장영준 과장님, 이상일 과장님 그리고 홍성준님, 정태성님, 김명훈님, 서영삼님, 최규순님, 장은영님, 함평숙님 등 직원 동료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 논문이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동안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홍배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몇 줄 글로 전하는 것이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논문심사에 자상하게 꼼꼼히 챙겨주신 최성일 교수님, 차경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내용에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장보고 해양개척정신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덕성 박사, 황성준 박사와 제가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시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재희, 미희, 선일)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정 창 원